

더 큰 도약을 위한 배려도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남보다 먼저 성공의 로드맵을 그려가며 실력으로 앞서가는 고졸인재

감동의 성공 스토리 속에서 그들의 꿈을 향한 당찬 의지와 노력을 엿본다



교육부



KRIVET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더 큰 도약을 위한
배른도전

만든 사람들

교육부

국장 홍민식

과장 김홍순

교육연구사 이재선

교육연구사 박강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김선태

연구원 신연주

연구원 장경천

연구원 전영우

심사위원회

작가 강년수(스토리앤)

기자 강홍민(한국경제매거진)

교사 김억경(서울공업고등학교)

팀장 노태룡(KB국민은행)

팀장 박남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팀장 백형창(대한상공회의소)

관세행정관 장윤희(관세청)

과장 황진우(KRX국민행복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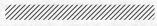
더 큰 도약을 위한 배움도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엮음



CONTENTS

PART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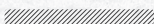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재학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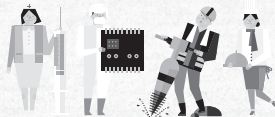
- 09 나의 빛, 나의 열정을 쓰다
금상 / 유혜린(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등학교)
- 018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꿈을 잡다
은상 / 임수연(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 025 꿈은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은상 / 장성현(영종국제물류고등학교)
- 031 나의 취업 마라톤 42.195km
은상 / 김제시카(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 037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은상 / 이한솔(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 042 취업은 운? 아니 전략!
동상 / 석지은(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 046 주인공은 YOU, 꿈을 향해 CHEER UP!
동상 / 김가영(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 052 넘어지고 뒹굴어도 괜찮아
동상 / 주승혁(순천전자고등학교)
- 057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라
동상 / 문슬지(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 063 벚꽃이 지면 여름 잎이 찾아온다
동상 / 김준영(대구공업고등학교)
- 069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동상 / 이해인(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
- 075 걱정말아요. 그대
특별상 / 조효주(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
- 081 I'm always ready
특별상 / 김민선(경화여자English Business고등학교)
- 086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라
특별상 / 손소원(진성여자고등학교)
- 090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취업 성공기
특별상 / 최은진(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
- 096 햇별은 짹짹 모래알은 반짝
특별상 / 이해은(대전여자상업고등학교)

PART 02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졸업생 부문



- 105 전교 꼴찌 꿈의 직장 신입사원 되다
금상 / 최정기(한국지역난방공사)
- 112 전기 기술자를 꿈꾸는 소녀
은상 / 정혜주(관악구청)
- 118 방황하는 청소년에서 효자로 거듭나기
동상 / 임승일(삼성전자)
- 124 일방통행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상 / 이혜성(삼일회계법인)

PART 03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성인 부문



- 131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금상 / 홍성건(수원공업고등학교 교사)
- 136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은상 / 이성규(경북공업고등학교 교사)
- 142 사랑살랑~ 취업지원관의 나비 날갯짓
동상 / 송영환(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관)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Part 01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재학생 부문



나의 빛, 나의 열정을 쓰다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꿈을 잡다
꿈은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나의 취업 마라톤 42.195km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취업은 운? 아니 전략!
주인공은 YOU, 꿈을 향해 CHEER UP!
넘어지고 뒹굴어도 괜찮아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라
벚꽃이 지면 여름 잎이 찾아온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걱정말아요. 그대
I'm always ready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라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취업 성공기
햇별은 짹짹 모래알은 반짝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나의 빛, 나의 열정을 쓰다

금상 / 유혜린



'꿈'을 쓰던 소녀

하고 싶은 게 참 많았던 중학교 3학년 시절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해왔던 피아노를 전공으로 할까? 새롭게 작곡 공부를 시작해 볼까? 뮤지컬 배우가 돼서 무대에 올라보고도 싶어. 공연 기획자가 더 재밌을까? 시인이나 소설작가도 되고 싶은데, 영화나 광고도 만들어보고 싶다.’

누군가 저에게 장래희망을 물을 때면, 저는 한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꿈으로 가득 찬 이야기를 할 때 주위의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걸 네가 선택해서 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진학 후 대학입시를 위해 공부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저의 미래로 여겼습니다.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입학 원서를 쓰기 시작하는 시즌이 되자 고민이 되었습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흘러가듯이 고등학교 3년을 보내도 되는 걸까?’

그냥 남들과 같은 삶, 같은 길을 걷어가는 게 제 주체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저희와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같은 재단의 학교였습니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로 입학설명회를 듣

게 되었습니다. 담당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열심히 들었지만, 제가 알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제 머릿속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 세포가 반짝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저거다!’

처음으로 현실에 발을 디딘 순간이었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무섭게 증가하고 있는 취업난 속에서, ‘고졸’의 학력으로 당당히 사원증을 목에 건 청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히 ‘대학 진학’을 목표로 삼고 3년을 학교에 갇혀 공부하기에, 저는 너무나도 열정이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입학설명회가 끝난 후, 저는 길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 저의 열정을 마음껏 분출하고 싶었습니다. 단지 열여섯의 소녀가 꾸는 꿈이 아닌, 현실의 틀에 담긴 미래. 그 시작은 ‘이화미디어고등학교 입학’이었습니다.

열여섯 살에 있었던 이 일은 ‘유혜린’이라는 한 권의 책의 내용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빛을 내기 시작하다.

2014년 3월. 이화미디어고등학교 미디어비즈니스과 유혜린으로서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취업을 목표로 학교에 진학했지만, 그저 막연할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에 취업하고 싶은지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선배들의 이야기를 귀담아듣는 것’이었습니다.

다. 동아리를 선택할 때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음악과 관련되었으며 단원이 많아 다양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합창동아리에 반주자 자격으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며 선배들이 취업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천히 머릿속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

‘모든 일에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결말을 보여주자!’

공부하는 과목이 일반 과목이 아닌 상업 과목, 즉 회계, 무역, 금융, 사무 등의 처음 접해보는 과목이라서 시험공부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매일 5분이라도 그 날 배운 과목들을 복습하는 습관을 길렀습니다. 또한, 방과 후에는 항상 자격증 보충 수업을 수강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했더니 과목에 흥미도 생기고, 자격증도 빠르게 취득하며 제 가치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롭게 다짐한 신념이 제 성격까지 변화시켰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하는 조별과제를 꺼렸습니다.

“얘들아, 내가 발표를 할게.”

선배님들의 말이 생각나서 도전을 해 보았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몇 번 있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항상 조별과제는 도맡아 발표했고 남들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학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에는 중학생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화미디어고등학교를 홍보하는 활동까지 하며 말하기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학생으로

거듭났습니다.

고등학교 생활에도 익숙해져 있을 무렵, 쌍둥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17살의 나이에 어린 동생들을, 그것도 두 명이나 한 번에 갖게 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아기가 너무 예쁘다고 부럽다는 소리를 했지만, 저에게는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고 힘드신 어머니를 도와 집안일을 대신 맡아 하고, 가끔씩 아기도 보고, 거기다 학업을 병행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끝이 없는 자격증 공부에 시험 기간까지 겹치면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죽겠다’고 생각할 때, 저는 담임선생님의 한마디에 힘을 받게 됩니다.

“남들보다 힘든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건 정말 멋진 거야. 넌 진짜 대단한 거야!”

여태껏 힘들다고만 생각했던 것들이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힘든 것만이 아닌, 미래의 나를 가꿔줄 빛나는 시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는 걸 반드시 알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취업’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취업난 속에서 반기를 던지는 심정으로 고졸 취업을 결심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혜린’이라는 사람의 노력을 보여주고,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저의 열일곱은, 다사다난하지만 곳곳에 반짝임의 단어가 숨어있는 페이지였습니다.

“열정”을 쓰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해, 본격적으로 제 안에 숨어있던 열정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되자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져 적극적으로 참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합창동아리에서 본격적으로 반주 활동을 시작하며, 화요일 아침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연습하느라 하루하루가 바빴지만, 제 열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화의 체육대회에서는 매년 반별로 콘셉트를 잡아 퍼레이드를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 퍼레이드를 위해 콘텐츠 기획부터 의상, 음악 편집, 소품 제작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간을 할애하며, 친구들과 멋진 추억의 탐을 쌓기 위해 맘을 흘렸습니다.

또한 교내에서 매년 주관하는 '나라사랑 캠페인' 활동에서도 열정을 아낌없이 뽐내었습니다. '나라사랑 캠페인 기획단' 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한국 홍보, 공익 등을 주제로 한 나라사랑 캠페인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침 7시부터 회의를 열어 학생들이 어떤 주제로 활동하면 좋을지 생각하고, 조사하고, 연구하며 약 50여 개의 소주제를 준비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반에서 원하는 캠페인 장소를 섭외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밤을 새우는 날도, 쉬는 시간에도 못 쉬고 뛰어다니며 일을 하는 날도 많았지만, 열정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행복이 움츠러들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교내 행사에 참가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 관리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했어. 결과가 너무 심각하다. 늘 상위권을 유지하던 성적이었는데, 부모님께 실망을 드린 것 같아.’

어떤 일에도 열정을 다하겠다는 제 신념이 젖은 신문처럼 뭉그러져 머릿속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1학기 성적표를 받아본 후, 좀 더 체계적인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옆에는 항상 메모지가 함께였습니다.

‘해야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두고, 메모지를 들고 다니며 하나씩 체크하는 습관을 들여 시간을 알차게 관리하자.’

여름 방학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평소 취약했던 수학 과목의 성적 향상을 위해, 수학책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풀었습니다. 많은 문제는 아니더라도, 그 단원의 대표 유형은 꼭 익히고 넘어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또한, 학교 내신 공부가 아닌 자격증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뿐이었습니다.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가 ERP 회계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보충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ERP 자격증에는 회계 과목 말고도 다른 과목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ERP 인사정보관리사 자격증을 혼자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지식 없이 혼자 공부하는 것은 꽤 큰 부담이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덕분에 ERP 회계와 인사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덕분에 2학기 성적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제 열정은 더욱더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늘 야간자율학습을 통해 내신과 자격증 공부를 병행하며 각종 행사에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제 열정은 추운 겨울에도 식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에 전교생들 앞에서 연설하는 프레젠테이션 대회가 열리는데, 연말에 있던 많은 행사 준비로 프레젠테이션 대회의 참가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교생 앞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쁜 와중에도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파일을 제작한 끝에 총 2번의 예선을 전부 통과하고 본선 무대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곳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지하철 여행’이라는 주제로 꼭 멀리 여행을 떠나지 않더라도 가까운 곳에서도 쉽게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교생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준비 시간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당당하게 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열여덟은, 이렇게 열정으로 가득 찼던 페이지였습니다.

Twinkle, Twinkle!

고등학교 3학년, 본격적으로 취업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2학년 말부터 틈날 때마다 수정해왔던 자기소개서를 수도 없이 보고 면접 연습도 틈틈이 했지만, 여전히 어느 기업에 입사하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생 언니가 찾아와 한 말이 제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일이든 행복하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장에 다닐 수도 있지만, 거기에 행복이 빠진다면 삶이 너무 싱겁잖아요?”

학생들마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

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복지나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 것은,

첫째,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것.

둘째, 언제나 행복하게 근무 할 수 있는 환경일 것.

셋째, '나'라는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직장을 찾을 것.

물론 저 조건을 다 만족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로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던가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십 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교내외의 활동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그 시간은 부드러운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여러 활동들은 자기소개서를 가득 채웠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늘어난 말하기 실력은 면접에서 더더욱 빛을 발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한 LED 조명업체에 당당히 정규직 최종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당시, 저는 회사에서 기획이나 홍보 관련 일을 하고 싶다고 어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주변 어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고졸한테는 기획 일 안 시킨다.”

“회사의 머리가 되는 부분인데 고졸을 시키겠니?”

“원래 고졸은 잡일 위주로 하게 되는 거야.”

저는 현재, 그들의 착각을 모두 깨고 당당히 '기획홍보'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가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는 제가 생각했던 조건들을 모두 갖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때의 선택을 절대 후회

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지금도 크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의 선두로 다가오고 있고, 저 또한 빛나고 있습니다.

저의 열아홉 번째 페이지는 반짝임을 가득 채운 채 거의 마지막 줄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혜린’이라는 한 권의 책은 완성되려면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도 결말을 예측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제 이야기를 듣게 되는 모든 분들이 이 페이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아이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고졸취업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고등학생도 취업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제 이야기로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지울 수 있길 바랍니다.

고졸취업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제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대학 진학’만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빛을 끌어내고, 이 사회의 어른들께 보여주세요.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진짜 ‘행복’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꿈을 잡다

은상 / 임수연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은 칠성시장에서 중고 전자제품 가게를 운영하셨다. 부모님께서서는 새벽부터 장사를 준비해야 했고, 9살 터울의 오빠는 학교에 가야 했기 때문에 나는 새벽에 부모님을 따라 가게에 나갔다. 아침에 부모님이 장사를 준비하고 계시면 나는 판매대를 무대 삼아 한 손에는 드라이버를 들고, 발로는 발장단을 구르며 '남행열차'를 열창하고는 하였다. 시장에는 또래 친구가 없었기에 부모님께서서는 어린 나를 위해 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까지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시고는 하였다. 하루는 평소와 같이 아버지와 놀이터를 갔는데 그네를 밀어주시지 않아 나는 킁킁거리며 몸을 앞뒤로 흔들었다. 그때는 그네를 밀어주시지 않던 아버지가 어린 마음에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 주신 것 같다.

훈동 특기생에서 특성화고로 U턴

시간이 훌쩍 지나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께서 금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다. 어린 마음에 큰소리가 오가는 것을 마냥 무서워 방에서 이불을 덮어쓰고 울었다. 그리고는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서 돈을 벌고 싶다.' 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6학

년이 되었을 때 나는 운동을 시작했다.

“요즘 사회에 성폭행 등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많아져서 여자도 스스로 몸을 보호할 줄 알아야 한다.”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합기도를 배우겠다고 말씀드렸고 처음에는 단순히 호신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이내 특기가 되어버렸다.

중학교로 진학하며 ‘내가 돈을 빨리 벌고 싶는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돈을 버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경호원’ 이라는 직업을 목표로 다양한 합기도 대회에 참가하며 대회 경험과 수상 이력을 쌓아갔다. 훈련하는 내내 힘들었지만 땀을 뻘뻘 흐리는 것이 보람찬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중학생 3학년, 진학 시기를 앞두고 뜻하지 않은 부상을 입게 되었다.

“더는 운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의사의 소견을 받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4년간 흘린 땀방울들이 한순간에 모두 물거품이 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다. 중학생 때 공부를 잘하던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의 진로, 그리고 진학에 대한 고민들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나를 조용히 부르셨다.

“수연아, 너 특성화고 여상에 가라.”

순간 나는 한 번 더 눈앞이 캄캄해졌다.

‘여상이라니, 선생님은 나를 공부도 안하고 노는 학생으로 보신 건가?’

나는 이때까지만 해도 여상은 공부를 하지 않고 놀기 좋아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평평 울어버렸다.

“그럼 특성화고 입학설명회라도 들어봐라.”

선생님의 말씀에 크게 내키지는 않았지만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담임 선생님이셨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수연이 보고 특성화고 여상에 원서를 내라고 했더니 서럽게 울길래 알고 계시나 싶어 연락을 드렸습니다. 수연이는 제가 수연이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절대 아닙니다. 1년간 수연이를 지켜보니 먼 훗날 은행 창구에 앉아있을 것 같아 말한 겁니다. 수연이라면 분명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제야 선생님의 진심을 알게 된 나는 섭섭함이 조금 풀렸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입사의 기초를 닦다

다음날 나는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서 ‘KB국민은행’에 취업을 한 재학생 언니를 만났다. 재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취업을 한 언니가 대단하다 못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언니와 연락하며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고 은행원의 꿈을 조금씩 키우기 시작하였다.

71.2%의 중학교 졸업 성적을 뒤로하고 ‘나도 KB국민은행!’이라는 목표 하나를 가슴에 박으며 대구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회계, 상업, ERP 등 단어조차 모르는 1학년 신입생이었지만, 평범했던 중학생 시절과 다르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반장을 맡게 되었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성적이 올라갔다. 초등학교 이후 100점짜리 시험지를 처음 받아보았고, 하는 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을 몸소 실감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 단순히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닌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교내 책 쓰기 동아리에 소속되어 1년간 ‘대구 전통시장’에 관한 책도 동아

리 선생님과 함께 써내려갔다. 더우나 추우나 직접 발로 뛰며 상인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직접 취재하여 더 풍부한 내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덕에 대구시교육청에서 주최하는 ‘전국 학생저자 책축제’에서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수연아, 네가 대구 고등학생 대표로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하게 됐다. 교육부 장관님께 책을 전달하는 기념식에도 참여하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던 1학년이었지만 학교활동, 동아리활동을 열심히 하며 1년을 마무리하였다.

2학년이 되어서는 교내 창업동아리로 동아리를 옮겨서 활동하였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평가받는 대회 중심 동아리 반이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고 나니 번쩍이는 아이템이 없어 다른 친구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만 같았고 힘이 들었다. 매일 밤을 울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 시선에는 아닌 경우도 많았다.

우여곡절 끝에 <식물 자동인식 애플리케이션>을 창안해냈고, 이 아이템으로 나는 ‘전국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인 「Be The CEO」 대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성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그에 따른 스토리 등이 갖추어져야 한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몸소 느낀 점이다.

3학년이 되자 매일같이 취업 스트레스에 악몽을 꾸었다. 우리 집의 경제적인 문제를 알게 되었고, 집안의 경제 문제가 트라우마처럼 머릿속에 박혀버

려서 ‘빨리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인 것 같다.

‘내가 꿈꾸던 기업이 아니면 어떡하지?’

‘혹여나 취업을 못 하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있었지만, 열심히 한 만큼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것을 스스로 다짐했다.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노력해 보자.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러던 중 내가 그토록 바라던 ‘KB국민은행’의 채용공고를 보았다. 온몸에 긴장감이 돌며 힘이 들어갔고 한번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4월 27일, ‘KB국민은행’ 면접을 보러 가는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다. 면접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게 느껴졌다. 나의 순서가 되어 면접장의 문을 열었을 때 면접관들의 등 뒤로 있던 창문에서 밝은 햇살 한 줄기가 내리쬐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편안하게 면접을 보았다.

“옆 지원자보다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면접관으로부터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어려운 질문을 받았다. 평소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더라도 특별한 것이 아니라면 옆 지원자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나를 중심으로 왼쪽의 면접자는 중국어회화를, 오른쪽의 면접자는 일본어 회화를 잘하잖아. 뭘 말씀드려야 하지?’

그때 잠깐 배웠던 국악이 떠올랐다.

“저는 민요를 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리랑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줍니다. 이런 아리랑을 한 소절 불러 봐도 되겠습니까?”

이 당시는 조금 민망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아리랑 소녀’라 불러 주시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이미지로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한다. 5월 4일, ‘합격’ 소식을 보고 부모님은 물론이며 오빠까지 눈이 통통 붓도록 울었다. 그리고 나도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찼다.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7월부터 7주간 연수를 끝내고 지점에 배치를 받아 업무를 시작한 지 어느덧 두 달 정도 되었다. 돈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나의 작은 실수가 고객의 자산에 큰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실수에 더욱더 예민한 직종이다. 업무도 숙달되지 않은 나에게 고객 응대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렵다.

대기시간이 길다고 다짜고짜 통장을 던지는 고객님, 현금 돈다발을 던지는 고객님, 동전을 쏟아버리는 고객님 등 당황스러운 고객님들이 오시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이 지금은 당연하지만 그런 고객님들을 달래드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려보내야 할 때면 자기 전에 생각이 날 만큼 마음에 걸리곤 한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한 신입이고, 열정 가득한 나의 모습으로 고객님을 대한다면 머지않아 분명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원이 될 것이라 스스로 기대한다.

은행 취업이라는 영광의 문을 뚫은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등 많은 분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길은 내가 맞이하는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최선의 정성을 다하고, 행복한 미소

를 갖고 돌아가시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지금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고 싶다. 선인장에 꽃을 피우는 열정으로.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꿈은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은상 / 장성현



중학교 시절 상위 10%대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었던 저에게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진학을 바라셨던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비교적 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막연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부모님과 달랐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중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일 뿐이다. 4남매의 장남으로서 부모님께 막중한 학비 부담감을 안겨드리고 싶지 않아.’

따라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부터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 탐색하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3년간 실무 투입을 위한 전문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을 시행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는 멋진 제도까지 알게 된 저는 부모님께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취업을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인정받기 힘든 세상이란단다.”

평소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설득하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걸어 나갈 길만큼은 내가 직접 정해

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특성화고등학교의 홍보대사가 된 것처럼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논쟁은 계속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부럽지 않을 아들이 될 게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에 차가운 눈이 뜨거운 불 앞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듯 부모님의 마음이 설득됐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에 대해 응원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응원을 들은 저는 자신감이 생겼고, 남부럽지 않을 아들이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꿈을 찾는 탐색과정

간절히 바랐던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직업을 갖기 위해 공부할지, 어느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노력할지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게 가장 중요했던 1학년 때의 과업은 목표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걸어 나갈 길의 목적지를 찾기 위해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무역, 금융, 회계 등의 다양한 방과 후 학교 수업에 참여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위함 이었습니다.

이 1년간의 노력을 통해 찾은 저의 목표는 전문 금융인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금융이라는 분야는 모든 산업에서 필요한 필수 요소이기도 하고 국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분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직업은 개인의 생계뿐 아니라 사회 전체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던 저였기에 전문 금융인이라는 직업은 저의 간절한 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꿈을 찾은 동시에 지금의 저를 만든 한 가지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꿈은 크게 가져라 깨져도 그 조각이 크다’

인터넷 서핑 도중 눈에 띄었던 이 문구는 목적지를 설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매우 인상 깊었던 말이었습니다. 전문 금융인이라는 꿈은 갖고 있었지만, 군대 때문에 취업이 절대 쉽지 않아 보였던 터여서 이 문구가 와 닿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찾은 저의 높은 목적지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감독원이었습니다.

금감원도 한 걸음부터

금융감독원이라는 높은 목표를 설정했지만, 아직은 막연했던 목표였습니다. 이 큰 꿈을 현실화하기 위해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마음가짐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첫째, 내신 성적 관리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성적이 2.0등급 이내 학생을 학교별로 한 명씩만 학교장 추천을 받아 채용 절차를 진행했기에 내신 성적을 관리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자 1학년 때 1.86등급이라는 커트라인에 근접한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저는 2학년 때부터 내신 성적 관리에 더욱 집중하였고 1.32등급까지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둘째, 다양한 금융교육 참여입니다.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금융교과수업, 방과 후 금융반 활동뿐 아니라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교육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매일 경제에서 주최했던 ‘청소년 경제 캠퍼스 26기’, 금융감독원의 ‘청소년 겨울방학 금융교실’, IBK 기업은행의 ‘금융경제캠프’ 등 금융교

육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가하며 폭넓게 금융에 대해 배워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선망의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활동에 참가했을 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금융에 대해 상세한 소개를 해 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금융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인재가 되어야지.’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짐했습니다.

셋째, 사회봉사 활동 경험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사적인 업무가 아닌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사회봉사 정신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2006년, 오른쪽 복사뼈를 잃는 사고로 인해 가족과 함께 어려운 나날을 보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있던 저였기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을 아이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살았던 지역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위치한 ‘새생명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문화 가정, 소년 가장 아이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학습을 지도하는 일을 맡아 봉사하며 아이들에게 더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웃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도 자극이 되는구나.’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학교생활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회사 면접에서 소심한 성격인 사람들은 면접관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후 저는 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나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내 농구리그 선수, 축구리그 심

판 등 스포츠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영어팝송 대회, 교내 토론대회에도 팀을 이루어 참여하며 토론대회 우수, 팝송대회 금상이라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6학년도에는 학생을 대표하는 전교회장에 당선되어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이제는 교내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꿈을 향한 마지막 관문

2016년 5월 2일, 손꼽아 기다리던 금융감독원의 채용 공고가 발표된 날 저는 합격자 발표를 앞둔 사람처럼 가슴 졸이며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매년 그래왔듯 상경계열과 전산계열에서 6급 고졸 신입사원을 총합 5명 채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5명 중 한 명이 내가 될 수 있을까?’

불안감이 들기도 했지만, 지난 노력들을 떠올리며 자신감을 북돋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채용 과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무사히 통과하고 다음 전형 합격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필기전형은 금융 일반과 상업경제 등의 실무시험과 논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실무시험은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면 고득점이 가능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처음 접했던 논술이 걱정이었습니다. 생소했던 논술을 배우기 위해 수학 선생님을 찾아갔고 논리적인 글을 작성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훈련했고, 최근 경제뉴스와 경제 용어를 정리해 나가며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학 선생님의 도움으로 필기 전형 역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 전형은 좋은 인상과 진솔한 말들을 해야 면접관의 마음을 흔든다.”

선생님들의 말을 기억하며 준비해나갔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으로 2달간 진행됐던 모든 전형을 통과하고 드디어 최종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역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실리기도 했고, 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큰 영광을 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내년 1월 금융감독원 입사를 앞두고,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꿈꾸었던 일이 현실로 돌아서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 금융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최종 합격한 후에도 금융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기 위해 노력했고, 전국 각 지역에서 6명씩 선발된 학생들만 참가한 ‘전국 상업경진대회 금융실무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저는 금융감독원 입사라는 지금의 꿈을 이루었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겐 아직 더 많은 사회봉사 경험과 금융지식이 필요합니다. 장차 더욱 성장하여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킬 중요한 인재가 되어 보겠습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나의 취업 마라톤

42.195km

은상 / 김제시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장 트랙을 땀 때 도착점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커브 코스보다는 도착점에 먼저 도달할 수 있는 직선코스로 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최단거리를 추구하던 저는 늘 '지름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기에 고민하고 또 고민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도중 문득 의문점 하나가 뇌리를 스쳐 갔습니다.

‘꼭 돌아가야 할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면, 누구나 하는 똑같은 입시를 3년 동안 해서 대학에 입학하고, 4년, 혹은 더 될지도 모르는 대학생활을 마친 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취업 준비, 마침내 취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커브 길이 생겨 도착점까지의 거리가 길어질 것 같다.’

물론 배움을 추구하여 대학에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끝에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목표까지의 최단거리를 찾던 도중 특성화고등학교라는 '지름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취업하는 것이 집안 형편이 어렵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주변 시선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선입견을 깨고 싶어 하는 저에게 오히려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취업이라는 끝인 지점을 가진

취업 마라톤 출발선에 섰습니다.

시가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취업 마라톤은 이미 시작되었고, 응원 반 걱정 반이 섞인 가족들과 선생님, 친구들의 기대 속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내가 꼭 입증해낼 거야.’

이런 생각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골인 지점까지 다른 참가자들에게 뒤처지거나 경기 도중 쓰러지지 않고 도착하려면 급수대에서 물을 꼭 챙겨 마셔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급수대에서 챙긴 것은 내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 수업은 듣지 않고, 그저 시험 기간에 수업내용을 무조건 외우고 보는 공부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에 처음 올라와서도 이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정작 본 수업은 듣지 않고, 시험이 다가오자 모든 교과서와 선생님께서 주신 프린트들을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밤을 새 외웠습니다. 그 결과 첫 시험에서 전교 3등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몇몇 선생님들께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셨고, 체력 또한 약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거만한 공부 방법은 아니나 다를까, 다음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하자.’

그렇게 마음을 고쳐먹고 본 수업을 열심히 듣다 보니 새벽에 고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교과서를 뜯어먹듯 외우지 않아도 성적이 올랐습니다. 1학년 전체 수석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좋지 않은 시선 또한

애정의 눈빛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페이스를 유지한 저는, 끝인 지점 직전까지 1.01%라는 내신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급수대에서 챙긴 것은 자신감입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미운 오리 인 줄만 알았던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여러 선생님들의 관심과 기대를 받다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미운 오리가 아니라 백조가 될 거야.’

백조가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교내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였습니다. 학급회장, 학생회, 3학년 총 취업 부장과 같은 직책을 맡는 것뿐만 아니라 창업경진대회, 교내 직업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대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매사에 임하다 보니 좋은 성과를 얻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감은 취업이라는 끝인 지점에 도달할 때 가장 큰 도움단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급수대에서 얻은 것은 자격증입니다. 저는 취업을 서로의 남편감, 신붓감을 고르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하나라도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지라 저는 좋은 신붓감이 되기 위해 어필하기 위한 조건을 하나라도 더 늘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좋은 신랑감에게 신부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세운 계획은 바로 자격증 취득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첫 번째, 두 번째 급수대도 거쳐 온 저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거친 세 개의 급수대는 결승선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사막 가운데에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거울로 본 저의 다리는 예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구간이자 제일 큰 관문인 취업만 남겨둔 채 저

의 취업 마라톤도 끝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3학년이 되는 동시에 여러 회사들의 공채가 열렸습니다. 기회는 무궁무진 하였습니다.

‘내가 들어갈 회사 하나 없겠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회사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류에서 저의 자만심을 느끼셨는지, 저는 지원한 모든 회사로부터 서류전형 탈락이라는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던 저는 흔히 말하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었고, 제 마음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앞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였고, 저의 자만심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알 수 없는 이유에서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독후감 수행평가 때문에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찾았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일 세.’

자신감에 넘치던 제가 겁쟁이가 되어버린 이유를 찾게 되자 해결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어 눈물이 났습니다. 해결방안은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을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슬럼프를 극복하고 흠을 털고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전의 나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꿈을 실현하고자 삼성화재라는 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더 성장한 저였지만, 초조한 마음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과가 발표되는 날, 긴장 속에서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였습니다. 갑자기 확 뜨는 화면에 놀랐고, 내용에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취업 마라톤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습니다.

완주, 또 다른 시작

특히 면접을 보던 날이 생각납니다. 면접관님들이 있는 문을 열기 전, 제 심장에서는 치타 100마리가 달리기 경주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속 치타들과 함께 면접실에 들어갔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치타들은 더욱더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이 내가 삼성화재에 입사해야 관련 있는 분들이지, 아니라면 이렇게 떨 필요 없잖아?’

그러자 떨리던 목소리가 가다듬어지고, 더듬더듬 나오던 질문에 대한 답변들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면접관에 질문에 당당하게 답변했습니다.

“입사 후에 뵙겠습니다.”

그러자 면접관 세 분은 호탕한 웃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불안에 떨며 결과를 기다렸고, 결과가 나오는 날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 확인을 클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결승선을 통과하였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취업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었던 건 꿈을 이루리라는 믿음과 끊임없는 노력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어

나고, 불굴의 정신으로 꿈에 도전한다면, 이루어내지 못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꿈이야말로 새 시대를 여는 힘이자, 희망과 미래 그 자체입니다.

저의 수기를 읽는 모든 분들이 취업 마라톤, 혹은 인생 마라톤에서 완주하여 꿈을 이루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마라톤을 찾아 완주해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은상 / 이한솔



최종합격을 하고 이 글귀를 처음 본 순간, 저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포용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솔아, 고생했다.”

그 느낌은 정말 포근했고 어떠한 긴말보다 힘 있는 위로였습니다. 더욱 제 마음에 담고 싶어서 이 글귀를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었고 그 액자를 아버지께 보여드렸습니다.

“아이고, 그래.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우리 딸이 걸을 날보다 아름답겠니. 아빠는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빠는 너를 항상 응원한다.”

아빠의 응원을 받은 저는 더 힘차게 저만의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꿈 많은 소녀의 특별한 선택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었던 저는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아노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하지만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던 상황이라 학원에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작정 피아노 학원을 찾아갔고 저의 간절한 마음과 가정상황을 원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원장님께서 피아노

를 배우게 해주셨습니다.

‘뭐든지 해야겠다, 할 수 있다는 의지만 있다면 가능하구나.’

염치가 없어 오래 다니지는 못했지만 소중한 배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임원’을 줄곧 했습니다. 이를 통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을 때, 친구들과 선생님 사이에서 갈등을 조절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인문계에 가서 대학에 진학해야지.’

평소 부모님이나 저는 다른 친구들처럼 인문계에 가서 물 흐르듯 대학을 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이 되자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해서 불안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겠다.’

생각 끝에 교사이신 고모와 충분히 상의해 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말 분야에서 1인자가 되고 싶다.’

고민 끝에 평소 동물을 좋아하던 저는 당찬 포부로 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면접관님들은 이런 마음을 알아주셨는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1학년 여름 때 처음으로 2주 목장실습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생산목장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사실에 정말 설레었습니다. 기온이 높아 더웠고 낮선 환경이었지만 목장 시스템에 대해 하나씩 배우며 실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장의 시설들이 많이 열악했습니다. 사람이 직접 조작해야 하는 급수기, 녹이 슨 축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바뀐다면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은 '농업직 공무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저는 FFK(영농학생전진대회)라는 대회에서 창의성 과제라는 분야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한 시간 동안 주제를 3개씩 정해 한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한 결과 스크랩북을 하나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스크랩북을 만듦으로써 대회 당일에 나오는 주제를 가지고 좋은 보고서를 만들었고 발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1등 상인 장관상을 탈 수 있었습니다. 비록 혼자서 준비하는 기간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농업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헛간이 불에 타고 나니 이제야 달이 보이는 구나

2학년 때는 진로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학교에서 진로를 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승마장, 경마장 강의로도 들었지만 저는 어떻게 농업이라는 분야에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찾아보던 중 '지역인재 9급'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여름방학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혼자서 하는 공무원 공부는 막막하기만 했고 막연했습니다.

'친구들이 같이 놀고 싶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독서실 책상 앞에 앉아서 포스트잇을 꺼내 열 번씩 적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적다 보니 공부 내용으로 적힌 포스트잇보다 나는 할 수 있다며 의지를 다진 포스트잇이 많았습니다. 주변에서 격려와 응원해주던 가족과 친

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힘을 받고 힘을 내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힘이 됐던 것은 저의 마음에 와 닿는 글귀를 발견했던 일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 글을 보고 스스로 채찍질하고 다독이며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글 덕분에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저력이 길러졌습니다.

1년 동안 필기를 준비하고 당일, 아버지와 같이 필기 결과 화면을 확인하는 그 순간 마우스를 잡으신 아버지의 손이 떨리시는 것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합격자 명단에는 정말 기쁘게도 저의 수험번호가 있었고 아버지와 저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고생했다. 우리딸.”

“고생했어요. 아빠.”

서로 껴안으며 나눴던 그 날의 감동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필기 합격 이후에는 오직 ‘면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선생님과 가족들과 모의 면접을 수시로 하며 순발력을 길렀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자주 방문하여 농업 관련 기사를 찾아보았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런 생각으로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100개가 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지?’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 글귀를 찾던 저는 ‘헛간이 불에 타고나니 이제 야 달이 보이는구나.’라는 글귀를 봤습니다. 마치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헛간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 달은 좋은 결과를 뜻하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지우려고 노력하고 떠오르는 저의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위기를 이겨내고 정보를 모으고 연습을 한 덕분에 노트한 권을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면접 당일 아버지께서 사 주신 정장을 깔끔히 차려입고 당당하게 면접장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많이 떨지 않고 면접을 보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던 최종 발표 날, 모니터 안에 있는 저의 수험번호를 보고 제가 스스로에게 말을 했습니다.

‘한솔아, 고생했다!’

저를 응원해 주신 선생님들, 가족들께 감사했고 힘내라고 말해주던 친구들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네가 걸을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힘든 상황에서 이겨내는 힘, 무언가에 집중하는 힘, 자신을 다독이는 방법은 지난 경험에서 배웠습니다. 저의 수험생 시절처럼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후배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때는 이 길이 어두워 ‘내가 잘 가고 있는 건가?’하는 생각도 들었지요.

‘괜찮아, 괜찮아.’

마음속으로 주문을 걸어도 걱정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아무리 아름다운 길이라도 내가 지금 걸을 앞날보다 아름다울까.’

힘든 것은 순간이고 그 순간을 이겨내면 분명 아름다운 길이 보입니다. 명심하세요! 당신의 앞날은 어떠한 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취업은 운? 아니 전략!

동상 / 석지은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특성화고 신입 행원 채용에 합격한 고3 학생입니다. KB국민은행 입행을 위해 평범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스토리를 지금부터 풀어나갈까 합니다.

중학교 때 여러 가지 봉사활동과 적성검사테스트를 통해 나에게 맞는 직업은 은행원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홍보를 듣고 난 뒤 '선취업 후진학'제도를 활용하여 은행원이라는 꿈을 이뤄나가고자 다짐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 후 은행원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작은 전략들을 먼저 세웠습니다. 취업은 운이라고 흔히들 말하지만 운도 계획에서부터 비롯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저 자신만의 전략들을 세웠습니다.

전략 1. 내신관리

내신관리를 잘하는 방법 중 하나는 수업시간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호응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수업 내용을 놓치지 않고 경청할 수 있었고 시험공부를 할 때에도 선생님의 수업을 연상하며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내신관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전략 2. 자격증

내신관리만으로는 은행원이 되기 위한 전문적인 요소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좀 더 실질적인 실무능력을 기르고자 저는 금융, 컴퓨터, 회계분야로 나누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힘썼습니다.

금융 자격증을 공부할 때에는 펀드, 파생, 방카슈랑스 등 낯선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정말 은행원이 되었다고 가정하여 고객님들께 금융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하자.’

그 후로부터 금융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펀드와 은행텔러 등 여러 금융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전략 3. 경험

은행원은 다양한 연령층과 소통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취업 스피치 동아리’로 활동하였습니다. 취업 스피치 동아리는 진로를 고민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께 특성화고등학교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대해 홍보하는 동아리입니다. 홍보하는 과정에서 짓궂은 장난을 하는 학생들에게 사탕을 쥐어주며 분위기를 흐리지 않게 유도하였던 경험, 여상 진학에 반대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직접 뵙고 홍보하여 설득하였던 경험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 상황에 대처하는 처세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는 실무능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또래 친구들보다 체력이 부족한 저는 유독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것에 지치고 힘들어했습니다. 공부할 때마다 그날의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는 자신에게 큰 낙담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경기장 트랙을 1시간씩 돌고, 토요일이면 가족 모두 등산하여 체력을 키워나갔습니다. 1시간에 트랙 6바퀴도 돌지 못했던 저는 1년 후 12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얻은 강인한 체력은 다방면에서 결과를 나타내주었습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계획하는 습관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집중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은 더욱 향상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급의 실습 부장을 한 저는 '학급의 은행원'으로서, 친구들의 자격증 접수비용을 수납하여 관리하고 납부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마감 날까지 접수비용을 잊고 가져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마감일 일주일 전부터 SNS를 통해 공지를 하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내고 접수비용을 일찍 낸 친구들에게 사탕을 줌으로써 일찍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실습 부장 역할을

200% 이상 한다.'며 저축을 걷는 일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전략4. 취업준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3학년은 취업 준비생입니다. 은행원이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2년간의 전략들의 결과를 확인할 차례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KB국민은행의 자기소개서 항목은 작년과 재작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해 보면서 준비해 왔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 전형 중 수리 영역은 저에게 있어서 취약점이라 생각해서 수리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였습니다.

합격한 가장 요인은 면접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적과 학교, 이름은 비공개로 진행되었습니다.

‘나에게 온 마지막 기회다.’

내신 성적이 최상위가 아니었던 나에게 천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되어 후회 없이 준비하였습니다. 작년도에 합격한 선배님을 주말마다 만나 실제적인 조언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은 표정을 밝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의 근육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얼굴 근육을 풀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 웃고 다녔습니다. 그 결과 면접 당일 저는 환한 미소로 면접관님들께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잘할 수 있는 점은 부각하고 부족한 점은 노력하여 채워나가므로 저 자신만의 전략들을 세워 취업이라는 관문에 통과하였습니다. 은행원의 꿈을 이루기 위해 전략을 세워 결과를 나타낸 것처럼 입행 후에도 계획을 세워 발전해나가는 행원이 될 것을 자신합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주인공은 YOU, 꿈을 향해 CHEER UP! 동상 / 김가영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하회탈 같은 미소를 가진
지원자 김가영입니다.”

산업은행 면접장에서의 설렘과 긴장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5년간 산업은행원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온 저에게는 입사 지원을 하는 준비 기간이 지난 19년 저의 삶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반면, 제일 떨렸었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혼한 노력과 중 한 사람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제 모습을 변화시켜 취업의 목표를 이뤘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장해온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공백기가 나의 꿈에 곱하기가 되다

초등학교 때 교과 성적이 좋았던 저는 중학교 입학 후에도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계속 잘하겠지.’

하지만 중학교 첫 시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등수는 한없이 바닥이었고, 성적표를 받은 저의 모습은 요즘 흔히 쓰는 말 중의 하나인 ‘멘붕’이라는 단어와 어울렸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의 시간 동안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고, 학교생활의 기본인 공부를 포기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특히, 진로를 많이 고민하던 중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친구의 언니가 KDB산업은행에 입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금융과 관련이 있는 상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 보는 게 어떨까?’

KDB산업은행에 입행하신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 특성화고등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회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고, 3학년 때에는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 수학과 영어를 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생각보다 높은 내신 성적을 받아 청주여상에서 장학금까지 받으며 고등학교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업은행 맞춤형 인재가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높은 내신관리

특성화고는 인문계와 달리 회계, 금융 등 다른 친구들도 접하지 못한 새로운 과목이 많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시작하기 위해 내신공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신 산출을 한 결과 상위 1% 이내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금융에 집중

KDB산업은행원이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에 가끔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은 전문직이라 생각해 자격증 취득을 우

선으로 삼았습니다.

금융 자격증의 첫 출발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은행텔러’라는 자격증이었습니다.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외국어만큼 어려워. 금융 수첩을 만들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공부해 보자.’

저는 쉬는 시간, 등하교시간 등 버려지는 시간에 수첩을 항상 들고 다니며 암기했습니다. 버스의 첫차와 도서관의 첫 수험생은 ‘바로 나’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고, 뻑뻑한 스케줄이 몸에 익었습니다. 공부 습관을 바꾼 결과, 은행텔러를 생애 첫 자격증으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증권투자상담사’라는 자격증을 공부할 때에는 힘들어 수업시간에 운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명확한 목표를 되새기며 다독였습니다. 총 5개의 금융자격증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전국의 특성화고 학생들이 실력을 겨루는 <전국상업경진대회 금융실무 종목>에 학교의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잡았습니다. 주말에도 밤늦게 까지 학교에 남아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긴 시간을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받았지만 끝까지 긍정적으로 가자는 가치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육부장관상이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셋째, 경험 속 깨달음

저는 사회에 진입하기에 앞서 자신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맞춰 다음과 같이 다양한 교내외 경험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강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선, 저는 2학년과 3학년 때 교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학기

초, 실장으로서 목표는 ‘관심을 통해 협력하는 반’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색한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은 단체 활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자를 중심으로 10km 마라톤에 참가하도록 독려했습니다. 힘든 상황을 함께 겪고 나서 학급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학급 회의에서도, 수업 태도도 모두 적극적으로 변화였습니다. 이 경험들을 통해 배려와 관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또한, 밝은 표정을 갖기 위해 웃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창구에서 고객을 대하는 텔러로서 밝은 이미지는 기본인데 은행원의 꿈을 가진 저에게는 단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거울을 보며 하루에 30분씩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웃으며 인사하는 작은 행동이 주위 사람들까지 기분 좋게 했고 저 역시 밝은 이미지도 변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에 나가서 나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 좌절하기보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10기 틴 매일경제 학생 기자로 활동하면서 기사 작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자로서 시사 뉴스와 신문을 보며 자연스럽게 경제개념을 키우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틴매경테스트를 응시해 실력을 확인해보고 자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

3학년에 올라와서 산업은행의 채용 공고가 들어왔습니다. 기쁘기만 할 줄 알았지만, 굉장히 떨렸습니다. 입사 지원을 자필로 작성하던 때, 40장 정도를 다시 쓰며 글씨가 마음처럼 잘 따라주지 않아 속상해 울기도 하였습니다. 필기 전형에서의 고민은 논술이었습니다. 상업과목과 NCS는 전부터 선생님

들과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었지만, 논술은 준비가 미숙하였기 때문에 더욱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면접에서는 그동안의 경험들을 취업 담당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정리하며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산업은행에 대한 꿈의 진실성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면접 준비를 통해 면접관에게 진솔하게 전달되었고 그 결과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축하해, 가영아. 합격이야, 합격.”

최종 합격자 발표가 공개된 날,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았고, 그동안 응원해준 주위 사람에게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많은 꿈 중 ‘KDB산업은행 입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꿈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저의 결승점은 끝이 없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세세한 목표가 길을 인도할 뿐입니다. 상위 목표는 20년 뒤, 고액자산가들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국내 최고 Private Banker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조달한 자금을 우리나라의 유망산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투자하는 산업은행의 공공성에 크게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운은 실력이다.’

확실하게 준비된 자만이 기회가 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변화시키며 희망을 잡을 수 있었고, 그 희망은 새로운 출발점과 삶의 방향을 개척해 나가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과는 때때로 실망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

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따라 자신을 믿고 달려간다면 여러분의 손에는 희망과 같은 온갖 행복들이 가득 잡혀 있을 것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 파이팅! 고졸 취업 파이팅!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넘어지고 뒹굴어도 괜찮아

동상 / 주승혁



치이고 버림받으며 버텨온 나의 이야기를 누구에게 인가
들려줌으로써 희망을 전달하고 싶다.

‘나는 성공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도, 학교에 나의 이름이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서도 아니다. 단지 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기회를 얻었고 또 많은 사람이 귀 기울여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넘어지고 뒹굴어가며 꾸준히 주운 작은 돌들이 모여 커다란 돌탑이 된 과정을 진솔하게 적어보고 싶다.

특성화고? 일단 선택해!

내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는 뭘까?

‘취업의 틈새시장 때문에?’

‘전문기술을 좋아해서?’

둘 다 아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학생은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꿈과 적성을 일찍 찾아 그것을 목표로 진학하는 준비된 학생들과 성적에 맞춰 인문계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를 결정하는 보석이 될 석탄 같은 학생으로.

나는 후자에 속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전자에 속한다면 혼란스럽지 않게 자신의 꿈을 위해 갈 수 있다. 그러나 후자여도 괜찮다. 자신의 꿈을 찾는 시점이 온다면 언제든지 원하는 길로 파고들기만 하면 된다.

나 또한 성적에 맞춰 돈을 벌겠다며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다. 하지만 나는 석탄에서 영롱한 보석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나 자신을 달구고 달귀 결국 찬란하게 빛냈다.

일반 대졸자는 진학 직후부터 스펙을 쌓기 시작해 4년 동안 자신을 '만능 인재'로 만든다. 그렇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3년 동안 학교생활도 즐기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며 아름다운 고등학교 추억을 쌓는다고 생각한다.

성적 때문에 특성화고를 선택했을 경우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3년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 채로 흘려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수업 시간이건, 봉사 활동이건 온 힘을 쏟아부어 노력하였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참여했다. 그렇게 활동하다 보니 좋은 성적도 받고 교내 행사에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수상했다.

그과정에서 얻은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때는 일단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소중함에 부합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나중에 꿈이 생긴다면 그때의 작은 노력들이 꿈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넘어졌다면 일어나며 돌이라도 줍자

매 순간을 소중히 생활하다 보니 모범학생이 되어 있었고 자연스럽게 '공기업 입사'라는 꿈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그 길은 상상한 만큼의 꽃길이

아니었다.

준비해야 하는 활동과 공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살면서 처음 가져본 꿈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실습기술을 익히기 위해 기능 영재 동아리 활동을 했고, 그를 통해 각종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급식봉사, 교통봉사, 교문선도봉사 등 많은 활동을 통해 시간을 쌓았고 밴드부, 선도부장, 흡연지도 활동도 끊임없이 행했다. 처음에는 입사를 목표로 행했던 일들이지만 계속하다 보니 그것들이 또 다른 나를 찾게 해줬고 학교 생활의 목표가 되었다.

기능 영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구들에게 뒤처져 나 자신이 한심할 때도 있었고, 봉사활동을 하며 설친다고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다.

‘좌절하는 것은 중학생 때나 하는 행동이야. 고난과 시련이 와서 나를 넘어뜨렸다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시 일어나자.’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무릎에 상처가 나지 않는 방법, 손으로 짚고 일어나는 방법을 하나하나 터득했다. 물론 처음 넘어졌을 때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열심히 고생한 보상이 이런 비참한 결과인가?’

잠시 주춤했지만, 이 악물고 일어섰다. 지나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었다.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매우 값진 경험으로 바뀐 것이다.

나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고 그를 통해 나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전교 1등 타이틀을 놓치지 않고 교내 상장을 휩쓸며, 전라남도 대표 기능선수로 활동하기도 했었다. 학교에선 선도부장 활동과 밴드부 활동을 통해 나를 모르는 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유명해지기도 했고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참여해 선행의 아이콘이 된 경험도 있다. 이런 경험을 얻기 위해 나는 굵히고 찢어져 너털너털해 저도 다시 일어나 최선을 다했다.

‘넘어졌다면 일어서서 돌이라도 줘자.’

굳은 의지로 도전하고 노력해서 나는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했다. 입사는 그동안 이웃들과 어려움을 나누고, 꾸준히 봉사하며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따라온 부수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행운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입사라는 행운은 물론 내가 노력한 결과지만 고마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나보다 아직 빛나지 않은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이 행운과 빛을 함께 나누어서 더 큰 빛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즘 회사를 마치면 학교에 들러 후배들의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나는 꿈 없던 중학생에서 이제는 성공한 고등학생으로 탈바꿈하였다. 학교생활을 하며 미친 듯이 힘들어 울기도 했고 정말 기뻐서 학교운동장을 뛰며 웃기도 했다. 이런 많은 경험들이 지금의 성숙한 나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어떤 일을 하건 그 일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자신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순간마다 혼신의 힘을 다하고 하나하나 배우다 보면 어느새 나는 남극에 있는 큰 빙산처럼 창대해져 있을 것이다. 물론 아직 너무나도 부족하고 배워야 하는 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것이다.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금 자신이 못났다는 마음이 들지라도 일어나서 노력하자. 칠전팔기의 마음으로 떨지 말고 달려가자. 넘어지고 뒹굴어도 괜찮다. 우리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있으니까.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라

동상 / 문슬지



“그대라는 꽃이 피는 계절은 따로 있다. 그러므로 고개를
들라 그대의 계절을 준비해라.”

중학교 3학년 때 읽었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나의 꽃은 어떤 꽃일까? 나의 계절은 언제 올까’

항상 조금해하던 나의 계절에 꽃이 피었고 지금부터 나의 꽃을 피우기 위
해 준비했던 4계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봄

어린 나이에 나를 낳은 부모님께서서는 생계를 위해 서울에서 일하셨고 저
는 여수에 내려와 논밭으로 둘러싸인 시골 할머니 집에서 자랐습니다. 반 학
생 수가 9명인 초등학교에서 1등을 도맡아 하며 약간의 자만심도 가지고 있
었습니다. 집과 가까운 곳에 있던 중학교에 재학하면서도 학생 수는 많이 늘
었지만, 여전히 1등을 유지했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
았기 때문에 학업에 대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
교 진학을 결정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입학해 또다시 다른 학생들과 책상에 앉아 온 종일 수
업과 자율학습을 하며 경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 싫다.’

게다가 농사를 하며 뒷바라지를 해주시던 할머니께서 교통사고가 나서 가정의 책임을 도맡아야 한다는 생각에 마이스티고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남학생들이 전교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실습 위주의 교과들이 많은 학교에서 네가 어떻게 하려고 하니?”

힘들고 위험할 것이라며 마이스티고 진학에 반대를 하셨습니다.

“힘들고 위험한 실습이 아닌 안전한 실험을 하는 화공과를 선택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또 기숙사비, 학비도 무료로 지원해줘서 돈 걱정도 안 하셔도 돼요”

할머니를 설득했고 그렇게 저는 3월 3일 여수 석유 화학 마이스티고등학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설렘도 잠시 마이스티고의 생활은 중학교 생활과 달리 뻑뻑했습니다. 6시에 기상해서 태권도를 하고 오전 9시부터 10시 야간 자율학습까지 계속되는 공부, 휴대전화 수거와 화장품, 전자기기 같은 개인 물품도 소지할 수 없는 엄격한 생활의 반복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반에 여학생들이 2-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학생들끼리 다 같이 모여 우리끼리 잘 지내자며 서로 의지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남학생들과 멀어져갔고 반 분위기와 어울리지 못하게 되면서 사소한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 남학생들에게 먼저 인사도 하고 체육 시간에 경기에 참여해 열심히 운동하며 친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학생들도 점점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가정사를 털어놓으며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자신감이 생겼

습니다. 그렇게 ‘나의 인생에도 봄이 왔구나.’ 생각했습니다.

어름

그런 저의 생각은 틀렸었습니다. 전공과목과 자격증 위주의 공부만 하다 보니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인문과목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본 첫 중간고사 점수는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마이스터고는 입학 내신 커트라인이 20% 이내였기 때문에 대부분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고 저와 달리 모든 과목을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은 성적을 받을 줄로만 알았던 내 생각이 틀렸어.’

다음 시험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계획표를 짤 수 있는 수첩을 구매해 하루하루 계획들을 쓰고 실행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문제 풀기, 오늘 한 수업 연습하기 등을 써서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 오늘 했던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때면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둘째, 3바퀴 복습을 했습니다.

3바퀴 복습이란 1번 집중해서 진도를 나가고, 그다음 또 1번 보면서 부족했던 부분을 체크하고, 마지막으로 1번 보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빠르게 복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 다음 수업내용도 수월하게 이해했습니다.

셋째, 많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가꿨지만 응용 할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제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찰나 선생님을 통해서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자습서나 문제집을 사서 풀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음 시험에서는 좋은 성적을 얻었고 지금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계획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려면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포레상담부] 라는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포레상담부] 내에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고 남학생들 사이에서 주눅 들었던 성격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의 스펙 또한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과 겨울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 한 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척 집에 놀러 가면 어르신들이 묻곤 하십니다.

“공부도 잘하던 애가 왜 그런 특성화고등학교에 갔니?”

대학에 진학해야 취업할 수 있다는 편견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취업 후진학을 목표로 빨리 취업해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고졸취업이라는 목표를 설정한 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바로 자격증입니다. 입학하기 전부터 졸업인증제 필수인 위험물 기능사 필기를 따기 위해 공부했고 입학한 후 본 기능사 시험에서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연달아 환경기능사를 준비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아 기능사 시험을 보

지 못하였습니다. 5개월이나 남은 다음 시험을 기다리기에 뒤쳐질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 무작정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필기를 신청했습니다. 2주라는 길지만 짧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 5년 치를 풀었고 두 과목 다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기를 배우기 위해선 학원에 다녀야 했습니다. 한 과목에 10만원 씩 하는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알바를 시작 했습니다. 주말마다 알바를 하여 2달 만에 학원비를 마련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수업을 들으니 좀 더 집중 할 수 있었고 두 과목 다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큰돈을 마련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자격증을 취득하고 50퍼센트 이내 성적을 유지한 덕분에 KTR(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연구원에 추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기소개서를 쓰려고 키보드에 손을 올린 순간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많이 봐주시는 국어선생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남의 바른생활 이야기가 아닌 너의 이야기를 써봐.”

선생님에 말에 따라 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호기심이 많아 실험을 좋아했던 나의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옮겼고 친구들과 선생님의 조언을 들으며 몇 번의 보완과 수정을 한 끝에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여러 번의 모의면접을 통해 키워왔던 경험을 토대로 자신감 있게 대답해서 면접도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최종합격이라는 결과를 알려드렸을 때 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계셨던 할머니의 어깨를 펴 드릴 수

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다시, 봄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이 알려진 회사가 아니라서 많은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KTR은 한마디로 신호등이었습니다. KTR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안정성과 에너지 등급 등을 먼저 시험해서 합격 불합격 판단을 하고 마크를 부여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해주는 기관입니다. 마치 신호등 처럼요. 정보를 찾아보며 다짐했습니다.

“아, 이 회사에 합격해서 내 꿈을 이뤄야겠다.”

합격 후 첫 번째 연수에서 그동안 성적도 떨어지고 나태한 모습을 보였던 나에 대해 반성했습니다. 합격해서 꿈을 이뤄야겠다고 다짐했던 때를 생각하며 다시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고 50%에 간당간당했던 성적도 많이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열심히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며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화려한 ‘고졸 취업’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꽃을 피워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꽃 피울 수 있는 계절이 올까 항상 걱정하고 불안해했던 지난날들을 생각하면 꽃을 피운 지금 매우 보람을 느낍니다.

저처럼 당신의 계절을 기다리는 이에게 말 하고 싶습니다. 어떤 꽃이든 좋습니다. 자신이 꽃 피울 계절을 준비하세요!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벚꽃이 지면 여름 잎이 찾아온다

동상 / 김준영



올해 6월, 벚꽃이 만개하였다가 쓸쓸히 떨어지고 무성한 여름 잎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며 적지 않은 기업에 지원했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필기는 커녕 서류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고 그때마다 상실감은 더해갔습니다. 하지만 무던한 노력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결국 여름 잎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중학교 시절, 저는 글쓰기와 독서를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소심했던 성격 탓인지 힘들 때도 말하기보다는 글을 썼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경치를 바라보며 종이를 읽어내기도 했고, 종이를 채워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작가의 꿈을 가지게 되었고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고입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지 못했기에 작가란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았습니다. 작가는 수입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이 아니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살인적인 입시경쟁과 대입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각자의 꿈을 포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이 깊어갈 때 즈음, 우연히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설명회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나가게 된다면

집안에 도움이 될 거야.’

안정적인 삶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책도 손에서 놓지 않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구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스스로 선택한 인생의 제2장을 시작했습니다.

노력하라, 그리고 경험하라!

입학식 날, 학교의 정문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몇 장 붙어있었습니다. 공, 대기업에 합격한 선배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새겨져 있었지요.

‘나도 반드시 저 현수막에 이름을 새기리라.’

마음먹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한 공부로 적당하게 성적이 나왔고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대충하다 보면 어떻게든 취업하겠지.’

안이한 마음으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다가 2학년이 되던 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졸업을 앞둔 선배들의 취업률이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던 것입니다. 저는 위기감을 느끼며 능력을 키우기 위해 자신을 강하게 채찍질했습니다.

첫째, 각종 대회를 통해 자신감과 실력을 키웠습니다.

평소 좋아했던 글쓰기 대회는 물론, 많은 발표 대회에 출전해 소심한 제 성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독서와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결합한 대회인 독서 PT 대회에서는 교내 예선을 통과하여 지역 대회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해냈고,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대회를 기점으로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토론 실력이 향상됐습니다. 이를 통해 중학교 시절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성격을 극복하고 외향적이고 활달한 성격으로 점차 변화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채찍질은 자급자족이었습니다.

고졸이지만 어학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선, 토익과 토플 등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학원에 다닐 만큼 사정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애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만만하게 봤던 서빙과 요리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인 스트레스와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들의 추태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나 못해 내면서 무슨 일을 하겠냐는 생각에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결국, 열심히 일하며 사회생활을 배울 수 있었고 영어 학원 또한 다닐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토익 700점을 달성했고 현재까지도 어학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어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내신 관리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친구들과 스터디를 결성해 공부해 나갔습니다. 또한, 기계과의 선생님이 전공 관련 특강을 해주실 때는 빠지지 않고 들으며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내신 관리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마지막 방법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중국 단기 연수 인원을 선발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중요하잖아. 최고의 기회다.’

즉시 연수에 지원하였습니다. 평소 같고 닦아온 역량을 발휘해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여러 산업체를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다양한 학교, 거리, 문화 등을 직접 보고 느끼며 더욱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국 연수뿐만 아니라 대구공업고등학교를 대표해 TV에 출연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성화고교를 취재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저는 패널로 참가해 인터뷰했습니다. 모든 경험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실패를 모르면 성공이 된다

3학년이 되고 본격적인 취업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다양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자신감 속에서 떨리는 첫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처음 써낸 기업부터 꽤 큰 기대를 했고 필기시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결과는 커트라인에서 단 한 점 모자란 점수였습니다. 크게 낙심했지만, 아직 많은 기회가 있기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결코 저에게 합격이란 보물을 쉽게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좌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포기해야 하나? 지난 3년간 해왔던 노력과 경험들이 아깝잖아?’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술한 실패 끝에 결국 성공했고 이번에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공부와 함께 패배주의에 빠져있는 마인드를 고쳤습니다.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준영아, 인생을 크게 보자.”

조언과 함께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며 방학 직전, 한국남부발전에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통과하고 부산으로 필기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에 당황했고 촉박한 시간은 저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일주일 후, 생각지도 못한 합격 통보를 받았고 너무도 기뻐했습니다. 당장 학교로 달려가 선생님과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샤워하면서 마치 면접장에 있는 것처럼 수없이 연습했고 또 연습했습니다.

면접 당일, 할 수 있다는 말을 몇백 번 되뇌었을 때 제 이름이 들렸습니다.
“김준영 씨!”

면접장에 들어서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면접관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많았기에 준비해온 답변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 있는 답변을 했습니다.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를 잘해온 지원자들에 비해 말의 두서가 없었고 내용 면에서도 큰 강점이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합격을 간절히 원했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좌절하지 않고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일주일이 지난 8월의 어느 오후, 그 날은 제 인생 최고의 날이 되었습니다.

노력의 결실은 주인을 찾아온다

취업을 준비했던 시간을 돌아보면 그만큼 힘들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노력과 경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실 후배님들, 실패와 좌절에 절대 무릎 꿇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을 채찍질하며 나아가신다면 결국 원하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습니다. 힘이 들 땐 쉬어가면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남부발전 하동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름 잎이 모두 단풍이 되었다가 떨어져 이제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봄이 되면 다시 벚꽃이 만개할 것이고, 벚꽃이 지면 다시 여름 잎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부디 지는 잎에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찾아올 잎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파이팅!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동상 / 이해인



요리사, 선생님, 개그맨. 어린 시절 꿈꾸었던 나의 미래 직업들이다. 항상 책을 끼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독서를 좋아했고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해보고 싶다고 느끼는 일들이 정말 많았다.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꿈이 바뀔 때마다 잘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었다. 어린 나이였지만 내 판에는 되게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던 것 같다.

새로운 길을 탐색하다

중학교 진로 수업시간.

“희망 직업을 탐색하고 목표의식을 설정해라.”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많고 많은 직업 중에 단 하나의 직업을 선택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커리어넷, 워크넷 같은 사이트에서 진로 심리검사도 받아보고 여러 직업을 알아보았지만 거기서 추천해주는 직업들을 보아도 확 끌리는 직업이 없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을 벌써 무엇을 할지 생각해두고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은 다가오고 나만 혼자 이렇게 진로를 정하지 못한 것 같아 직접 조사를 해보았다.

그 중 나의 이목을 끌었던 것은 마이스터고이다.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과 기술 교육을 통해 ‘영마이스터’를 육성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다.

‘졸업 이후 우수기업 취업, 특기를 살린 군 복무, 직장 생활과 병행 가능한 대학교육도 제공한다고?’

마이스터고에 대해 계속 알아갈수록 그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고 이끌리게 되었다.

처음에 마이스터고를 진학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께서서는 거세게 반대하셨다. “요즘 시대에 대학을 나오지 못하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무시당한다. 그냥 계속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부모님 말씀이라면 항상 순응했던 착한 아들이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의견에 반기를 든 것 같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마이스터고에 들어가면 전문적인 기술을 쌓아서 빠르게 사회에 나갈 수 있어요.”

부모님께서선 계속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지만 한번 결정한 뜻을 굽히지 않았고 끝끝내 부모님께서도 허락해주셨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필기시험 그리고 면접,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때 난생처음으로 면접을 경험해 보았다. 질문 하나하나가 어렵게만 느껴졌고 별별 떨며 면접을 마쳤다.

‘자신 있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지원했는데 혹시나 떨어지면 어찌지? 괜한 고집을 부렸던 것이 아닐까?’

걱정했지만 당당히 입학시험에 합격하였다. 그렇게 내 목표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합격자에 한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오리엔테이션의 마지막 날 위험물 기능사 책을 받게 되었다. 처음 그 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공부하고 기능사 시험을 치르지 걱정도 들었다.

‘그래도 책을 보니까 내가 정말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게 실감난다. 그래! 열심히 해보자.’

설렘을 가득 안고 여수석유화학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영 마이스터가 되는 길은 내가 예상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었다. 매일 아침엔 6시에 기상하여 아침 운동을 했다. 중학교 때 배우던 인문 과목들이 아닌 공업화학, 단위조작 등의 전공과목 수업이 주를 이뤘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화학 공정 설계 및 도면 이해, 유체역학, 화공 열역학과 같은 교과목들도 공부해야 했다. 또한, 방과 후 시간에는 자격증 취득을 위한 기능사 수업과 TOEIC SPEAKING 수업을 들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교에 처음 들어올 때의 패기와 열정은 점점 사라지고 힘들고 설 틈 없는 딱딱한 일정 탓에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때였다. 그 당시 국어 선생님을 맡으셨던 문채열 선생님께서 ‘不狂不及’이라는 사성어를 알려주셨다.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 없다.’

이 단어는 불평불만만 늘어놓았던 나를 180°바뀌게 하였다.

‘나에게는 부모님의 뜻에 반대하면서까지 입학을 고집했던 열정이 있잖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미쳐보자.’

꿈에 그리던 취업의 문을 열다

가장 먼저 자격증에 힘썼다. 나만의 기능사 노트를 만들어 이론과 기출문

제를 공부해 나갔고 위험물 기능사 실기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들을 찾아가 여쭙보았다. 친구들과 함께 서로 의지를 북돋워 주며 2년간 미친 듯이 노력하였고 2학년 말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다.

작년에 좋은 기업들로 취업을 나가던 선배님을 보며 나도 기업에 가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3학년이 시작된 후에는 친구들과 면접 연습을 하고 NCS 문제와 인·적성검사 문제들을 풀며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기업 추천에 대비하였다.

매일 매일을 긴장 속에서 보내던 중 LG화학에서 총 10명의 학생을 추천받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不狂不及’

1, 2학년 간 미쳐서 준비한 덕에 나 또한 그중 한 명에 들 수 있었다. 그때 까지만 해도 작년에 LG화학에 들어간 선배님들보다 많은 자격증, 높은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달리 결과는 비참했다.

‘분명히 만족스럽게 면접을 치르고 나왔는데 왜 불합격일까?’

불합격할 거라고 생각도 안 해본 데다 그동안 기능사 시험도 계속 합격하고 있던 도중 오랜만에 느껴본 탈락이라 그 충격은 매우 컸다.

면접에서 떨어진 이후 한동안 목표를 잃고 무기력한 나날들을 보냈다.

“해인아. GS칼텍스에서 추천이 들어왔다. 열심히 준비해 보아라. 이번엔 좋은 성과가 있을 거야.”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데 기회의 신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회의 신은 풍성

한 앞머리를 지녔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여서 그 기회를 놓치면 다신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이미 처음 찾아온 기회를 한 번 놓쳐버렸는데 다시 찾아온 두 번째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정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며 미친 듯이 준비했다.

막상 시험장에 도착하니 500여 명에 달하는 지원자들이 와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붙을 수 있을까?’

걱정을 길게 할 시간도 없이 시험은 바쁘게 진행되었다. 예상보다 어려웠지만 신기하게도 쉽게 풀렸다. 필기시험 합격 이후엔 1차 면접이 이어졌다.

‘나 역시 충분한 자격과 실력을 갖춘 사람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면접에 들어섰고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보여드렸다. 자신 있게 면접에 임했던 덕일까? 1차 면접에 합격하였고 2차 면접을 준비했다. 꾸밈없이 진실 된 답변으로 만족스럽게 면접을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면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게 아니었나 싶다. 괜히 떠오르면 하던 일에 집중도 못 하고 생각만 한 것뿐인데 긴장되고 떨렸었다. 그렇게 최종 발표 날이 되었고 설렘을 가득 안고 결과를 확인하였다.

‘최종합격’

합격의 결과를 받아들자 그동안의 학교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고등학교 생활 미쳐있는 동안 느낀 게 하나 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해버리고 실천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생은 지나고 보면 잠깐일 뿐이다.

고생 끝에 얻는 열매는 말로 다 할 수 없도록 달다. 지금 당장 실천하라. 모두에게 그 열매를 먹을 자격은 주어져 있다. 다만 도전하느냐, 도전하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걱정말아요, 그대

특별상 / 조효주



오빠를 롤모델로 꿈을 키우다

제가 특성화고를 선택한 이유는 저에게 특성화고를 졸업한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업을 선택했고 자신의 역량과 적성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오빠의 모습을 보며 저와 적성에 맞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에 특성화고에 진학을 선택하였습니다.

‘최대한 좋은 조건의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자면 좋은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 거야.’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를 열심히 하였고 그 결과, 특성화고 중에서 취업률이 상위권인 해성국제컨벤션고등학교에 중학교 내신 상위 13%로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업이라는 하나의 목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른 친구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내신 성적 관리와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면서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동아리 활동, 교내능력 대회 등 많은 활동, 대회에 참가하면서 수도 없이 취업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취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아직 어린 저에게 다양한 경험으로 인하여 순발력과 참을성을 길러줄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떨어진 내신 성적을 올리기 위해 평소 수업 시간에 좀 더 집중을 하여 과 35등에서 14등까지 등수를 높였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한 회사는 삼아알미늄입니다. 무역회사에 지원한 겁니다.

‘나에게는 선생님들의 추천으로 취득한 무역영어 3급이 있잖아. 무역회사에 지원해보는 것이 좋겠다.’

솔직히 말하면 첫 경험이라 붙을 수 있다는 생각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삼아알미늄의 자기소개서 양식을 보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의 지도 아래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류 면접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뻐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기쁨을 만끽할 시간도 잠깐, 바로 면접연습을 하였습니다. 면접연습은 작년 면접보고서를 보면서 예상 질문들을 50개씩 뽑아서 연습했습니다.

1차 면접날, 처음 해보는 면접이라 긴장을 많이 하였습니다. 회사로 가는 동안에도 예상 질문지를 꺼내서 실틈 없이 연습하였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계속 떨려서 심호흡을 하면서 긴장을 늦추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면접을 보는 중에도 긴장감 때문에 질문에 대답을 해도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답변은 했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을 미치지 못했어.’

아쉬운 마음을 달래며 단념하고 있었는데 1차 면접에서 우리학교 3명 중 저 혼자 합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처음과 다르게 너무나 간절해졌습니다. 2차 면접을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붙고 싶은 마음에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주변의 조언에 따라 기본적인 질문들만 외우고 면접할 때 자연스럽게 대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선생님께 불합격 통보를 받고서 처음에는 우울했지만, 면접을 2번이나 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으로 생각했습니다.

‘준비를 게을리 하면 안 된다.’

첫 도전을 통해 면접 시 나의 약점, 그리고 실전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다음은 면접을 통해 알 수 있었던 단점을 고치기 위해 제가 한 노력들입니다.

첫째, 면접연습 많이 하기

긴장감에 말을 많이 더듬거려 면접연습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돌발질문에 대답을 잘하지 못했던 뼈아픈 경험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 연습을 다짐했습니다. 면접을 많이 볼수록 긴장감을 낮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추천받은 곳은 모두 지원했습니다.

둘째, 책과 경제신문 읽기

책이나 신문 등 글을 소리 내어 읽으면 발음도 좋아지고 어휘력과 논리가 풍부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뿐만 아니라 면접 시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취미생활 즐기기과 긍정적인 마인드 유지하기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잠자기 전 2시간 동안 동네 주변을 노래 들으면서 매일 걷고, 2주에 한 번씩 어머니랑 등산을 가거나 혼자 가서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였습니다. 떨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며 제 자신을 믿었습니다. 힘이 되는 말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지정하여 힘들 때마다 보았습니다.

이어진 참패와 합격의 기쁨

이런 노력을 하면서 두 번째로 지원한 회사는 올박스입니다.

‘고객을 응대 하는 전화 업무라서 목소리가 맑고 고객의 불만 사항에 상처 받지 않고 잘 대처해야 해.’

딱 제게 맞는 업무라고 생각해 지원해보았습니다. 서류는 저를 포함한 3명 모두 합격을 하였습니다.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신뢰감 있는 목소리 연습을 했습니다. 취미생활로 등산을 좋아하여 강한 정신력을 길러왔기 때문에 고객의 불만에 차질 없이 대처할 자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원한 회사는 알바이오라는 회사입니다. 알바이오는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회사입니다. 연속된 실패로 걱정이 많이 되었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큰 장점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떨어져도 낙심하지 말자, 나를 원하는 회사는 많으니깐 계속 지원해보자’

저를 포함한 4명이 지원했는데 서류는 모두 통과했습니다. 서류통과 후에

갑작스럽게 면접날이 잡혀서 하루 만에 면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 기대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합격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지친 마음을 다잡으면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다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때 지원한 회가가 지원한 회사는 딥 아이입니다. 딥 아이는 이스트소프트에서 만든 신생회사라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신생회사인 만큼 더 기회가 많을 거야. 어릴 때부터 나는 도전을 좋아했잖아. 창업아이디어 대회, 영어 프레젠테이션 대회 등도 다 잘해냈던 나인데, 이번엔 기필코 기회를 잡고 말겠어.’

여태까지의 지원한 회사들과는 다르게 느낌이 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도전적인 정신을 바탕으로 회사 발전에 밑거름이 되고 싶다.’

마지막 회사라 생각하고 선생님의 1:1 코치를 받으며 간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집에서는 전신거울을 보면서 태도, 말투, 표정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또 연습하였습니다. 그동안 면접을 많이 보았기에 덜 긴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막상 면접을 보고나니 더 잘 대답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게 못내 아쉬웠습니다.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은 들지 않았지만 이번엔 내심 기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접 당일에 선생님께 전화로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효주야 너 붙었어!”

그 순간 울컥하면서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 자신을 믿고, 좌절하지 않는 강한 마인드로 무장한 덕분에 마침내 합격한 것입니다. 제 자신이 대견스러웠습니다.

걱정 말아요. 그대

저는 솔직히 주변 친구들이 합격해서 회사로 나갈 때면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을까? 나만 뒤처지면 어쩌나?’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낀 것이 있습니다.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몇 번의 실패 후 포기했다면 지금의 기쁨은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의 문턱에서 좌절하는 친구들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드리세요. 도전하세요.”

저는 이제부터 또 다른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다섯 번째 도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I'm always ready

특별상 / 김민선



특 : 특별한 계획

지금 생각해 보면 제 중학생 시절은 평범 그 자체였습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남들과 같이 그저 인문계고-대학 진학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되었고, 여러 고등학교에서 입학 홍보차 학교 방문을 진행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특성화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화 English Business고에서 금융권에 합격하고 취업한 선배의 이야기에 감흥을 받았습니다. 당시는 아버지께서 암 투병 중이셔서 가족 생계가 매우 어렵던 때였고 고등학교 진학이라는 과정마저 모호했던 저에게 그 선배의 이야기는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인생의 뚜렷한 목표도, 계획도 없던 저는 그 선배의 모습을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취업이라는 목표로 인생을 개척해보자. 그리고 집안 생계에 도움이 되는 딸로 효도하자.’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특성화고에 입학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IBK기업은행에 합격함으로써 이 두 가지의 목표를 달성하게 된 제 3년간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학 후, 전문 과목인 상업 교과는 매우 생소했지만 흥미로웠고 열심히 노

력하다 보니 좋은 성적을 내게도 되었습니다. 일단 내신 성적 위주의 공부를 하던 중 ‘취업선도반’ 교내 선발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합격한 것이 실질적으로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기업 반과 금융 반 어디에서 공부할까?’

활달한 성격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취미는 신문 읽기이며 금융과 목에 가장 관심이 있던 저는 자연스럽게 은행 취업을 생각하게 되었고 금융권 반에 들어갔습니다.

‘은행원의 꿈을 키우며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자.’

성 : 성공을 위한 여정

1학년 막바지로 가던 11월,

“펀드투자상담사 마지막 시험이 있다. 앞으로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면 응시할 수 없도록 제도가 바뀌니까 이번 기회를 꼭 잡아라.”

선생님 말씀에 꼭 합격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업선도반 친구들과 함께 시험을 공부하던 중, 펀드투자상담사의 시험과 학교 지필 평가의 날짜가 단 하루밖에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펀드 공부는 어렵기도 하고 합격하지 못하면 다시 도전할 수도 없을뿐더러 내신 성적에 지장이 있을 것 같다.”

친구들이 모두 펀드 시험을 응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유만으로 포기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두 배 더 노력하자.’

자투리 시간까지 모두 아끼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처음 도전해 보는 금융

자격증인 데다가, 준비 기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계속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치며 노력한 시간을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펀드투자상담사 시험에도 합격하고 지필 평가에서도 전교 1등을 한 것입니다.

은행 취업이라는 목표가 없었다면 힘든 것을 참아가며 노력하는 열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하나 없이 살던 제가 1년 사이에 꿈이 생기고, 그 꿈을 위해 목표를 정하며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당당해진 자신을 발견하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한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학교 대표로 ‘경기도 상업경진대회’ 출전을 제안하셨습니다. 종목은 ‘정보활용능력’이었습니다. 원래 출전하기로 한 선배가 개인 사정으로 출전할 수 없어서 제가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짓한 시간 밖에 남아있지 않았고 Visual Basic, Macro 등 처음 접해 본 과목도 있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불안감과 책임감에 큰 부담을 느꼈지만 저는 이미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 일에 도전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저녁 학교에 남아 공부하고 주말에도 학교에 나왔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저는 장려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전국 디지털정보 활용 경진대회>에서 수많은 경쟁자를 제치고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화 : 더 화려한 내일을 위한 준비

3학년이 된 저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게 되더라도 두려움보다는 설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학년이 되어 취업 원서를 쓰고 처음으로 서류전형에 합격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며칠 못 가서 최종면접에서 불합격하고 말았습니다. 큰 좌절감도 있었지만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생각하고 개선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 IBK기업은행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서류전형에 합격한 뒤 이번에는 꼭 최종합격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다음 전형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자매 학교와의 국제 교류회 활동,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금융·경제 교육에 참여했던 일들, 중생들에게 열심히 학교 홍보 활동을 했던 경험 등 저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강조하며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English Festival 영어 말하기 대회수상 경험은 영어 면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I'm ready to work hard for IBK.”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이 문구를 외쳤던 저는 정말로 IBK기업은행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학생~ 합격을 축하합니다.”

인사부로부터 문자가 왔던 5월 26일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정말 IBK기업은행에서 열심히 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화고에 진학하여 취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인생을 계획해보자.’

은행 취업의 목표를 이룬 저는, 다음 목표를 선취업 후진학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집안 생계에 도움이 되는 딸이 되자.’

이 목표도 수월하게 이루었습니다. 특성화고에서 3년간 성적 우수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아가며 학교생활을 하여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특성화고를 입학하며 생각했던 바람들을 어느 정도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고 : 고졸취업을 위하여

아직 고졸 취업에 대한 선입견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께서도 처음에는 저의 특성화고 입학에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왜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취업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말씀드렸고, 좋은 취업 사례도 보여드리며 부모님을 설득했었습니다.

저는 특성화고에 입학했기 때문에 스스로 인생을 계획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 꿈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인문계고에 진학했다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수능 공부만 하며 10대의 마지막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좋은 취업 사례가 많이 알려져 무조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고졸 취업을 좋은 인식을 가지고 봐주시길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성공하거나 혹은 실패를 하더라도 크게 성장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역경 앞에 무릎 꿇지 마라

특별상 / 손소원



지금 이 시각도 밤낮으로 열공하는 이 땅의 공시생 여러분! 희망의 끝자락을 움켜쥐고 끝까지 놓지 말았으면 하는 진심 어린 응원을 전합니다. 저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의 취지를 먼저 살피고 내게 맞는 길인지, 내가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지 수없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또래 친구들보다 동적인 아이였던 저는 경찰관이 되었으면 하는, 그래서 날 가끔 때리고 놀리는 남자아이들을 모두 수감으로 채워 감옥에서 하루 재워버렸음 좋겠다고 생각하며 많이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찰관을 동경했고, 그 작은 꿈이 점차 자라면서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막이 오르다

중학교 3학년. 어머니와 함께 진로와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탐색하던 중 특성화고등학교 대상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제도를 알게 되어 경찰청의 업무를 지원하는 일반 행정직을 목표로 삼고, 진성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꿈에 대해 고민하는 교우들 사이에서, 확고한 꿈을 가지고 오로지 공무원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달렸습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한 자질에는 책임감과 봉사 정신이 필수적이라 여기고, 책임감을 키우기 위해 3년 내내 학급 임원을 맡았고, 봉사 정신을 배양하기 위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1학년과 2학년 때에는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한 성적관리에 힘을 썼고, 유독 공무원 시험 과목인 국어와 한국사, 영어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학교에서 개설해준 공무원 시험 대비반에 들어가 본격적인 공무원 시험공부를 시작했고, 이듬해 4월부터 하루에 세 시간도 못 자면서 악착같이 매달렸습니다.

국어는 제일 먼저 문맥을 파악하는 감각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해 국어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터라 인터넷 강의나 별도의 문제집 필요 없이 수업을 통째로, 그리고 국어 강사님의 목소리까지 성대모사 할 정도로 과목 자체를 즐겨 100점이라는 값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모두가 그러하듯 두렵고 다가가기 까다로운 과목이라 어머니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모든 영어 인터넷 강의를 찾아 샘플을 보여주셨고,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던 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힘든 문법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깨워주신 강의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또한 덩어리로 분리해 읽는 비법을 배웠고, 어느덧 강의에서 나오는 영어노래를 부르면서 노트북을 열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한국사는 복병이었습니다. 가장 친하고 언니 같은 과목이 배울수록 배신을 했습니다. 방대한 양에 놀라고, 죽어라 암기하고 흐름을 익히면 또다시 멀리 가 있는 한국사 언니의 배신은 시험 보러 가기 전날까지도 괴롭

힌 과목이었습니다. 한국사는 막힐 때마다 지금은 색이 바랜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교과서와 자습서를 펼쳤습니다. 공무원 한국사 교재보다 쉽게 정리된 내용을 보면서 흐름을 잡아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역경을 거름을 바탕으로 꽃을 피우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1차 합격의 기쁨을 누리던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관문인 면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를 믿자. 선생님들과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시는데 잘할 수 있어.’

어쩌면 그런 믿음은 3년간 꾸준히 해온 학교 홍보 활동에서부터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중학교 3학년들의 원서접수 기간이 다가오면 홍보활동을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 또한 각 중학교를 방문해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활동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부터 홍보활동에 참여해 친구들과 선생님들, 처음 보는 중학생들 앞에서 학교에 대해 발표하고 학생들을 상담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얼굴이 달아오르지?’

홍보 초기엔 쑥스럽고 창피해 말도 더듬거렸지만,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담을 대하는 능력과 대화의 기술을 터득하여 홍보팀의 엘리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렇게 키워온 화술은 면접에서 큰 힘을 발휘했으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3년간 쉬지 않고 일이 주어질 때마다 기회로 여기고 열심히 임했던 경험이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나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면 수많은 경험들이 비록 그 순간에는 힘들고 지치더라도 큰 밑거름이 되어 수확의 기쁨을 안겨준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역경 없는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가는 길이 고되어도 힘들어하지 말고 굳은 의지로 전진하십시오. 역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는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롤러코스터 같은 나의 취업 성공기

특별상 / 최은진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의 교통사고로 인해 저의 집은 크게 기울었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병간호하느라 저와 언니에게는 신경 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를 간병하시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되었고 정말 힘든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언니는 늘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려 노력하고, 저 역시 그런 언니와 함께 크고 작은 집안일들을 나누어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같은 나이의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성숙했고, 미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남들보다 불행하다.’

솔직히 이런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저 당시 힘든 일이 있었기에 지금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보다 힘든 가정사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그 당시 힘든 시간만 지나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좋은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저 역시 그 힘든 일을 버텨냈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 흥미를 느끼는 방법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학업에 관한 학원은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공부에 큰 흥미도 없었습니다. 비록 어려웠던 가정환경이었지만 체육관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금 내성적이던 성격을 고치기 위해 운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는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성격 또한 긍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인문계가 아닌 특성화고에 진학한 것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적성에 맞는 특성화고 수업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때보다 더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하였고, 시험 기간에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또다시 저에게는 큰 고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느껴졌던 과목조차 흥미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학교 수업이 왜 이렇게 지루하지? 그래도 학교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다행이야.’

이렇게 흐지부지 학교에 다니다 보니 시험성적 역시 1학년 성적보다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다시 공부해야겠다.’

생각은 굴뚝같아도 정작 행동으로 옮겨지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하자.’ 라는 생각보다 ‘학교에 재미를 두자.’ 라는 생각으로 학교생활을 하려 했습니다. 원래 학교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는 학업이지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너무 지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이유 첫 번째를 학업이 아닌 피구 동아리에 두게 되

었습니다. 비록 수업시간에는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지만, 학교라는 곳에 흥미는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대회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며 입상하였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업에 관련된 꾸중 대신 운동 쪽으로 칭찬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나도 선생님들께 인정받는구나.’

조금은 기뻐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에는 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자연스레 흥미가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저처럼 학업에 관심이 없는 친구들을 흔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공부해라.’라고 강요하는 것보다는 학교에 흥미를 가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요.

저 역시 아버지께서는 늘 ‘공부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달랐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생기면 스스로 할 거야.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할 짓은 하지 말자.”

그러면서 우선은 학교에 흥미를 느끼라고 얘기했습니다. 언니가 곁에서 좋은 조언을 해주었기에 원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내가 원하는 직업을 찾자

고등학교 3학년.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을 선택해야 할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 등 이

름만 대면 부러워하는 직업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저는 막상 하고 싶은 것 이라곤 사람을 만나는 일이나 운동을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운동을 직업 삼아 하기는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되었고, 사람을 만나는 일과 관련해서는 딱히 생각나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직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한 채 3학년의 1학기를 보냈습니다. 1학기 동안 많은 사무직 취업자리가 들어왔고 지원도 하였지만, 좋은 결과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주변에서 공기업 합격 소식도 들려오고, 금융권 합격 소식도 들려오게 되면서 조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엔 생산직을 간 후 열심히 돈을 번 다음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홈플러스에서 관리직을 채용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사무직보단 홈플러스가 적성에 적합하지 않을까?’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에서는 반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유통업체에서 일하게 되면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사람 때문에 힘들 거라는 말을 주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쉽게 되는 일은 없기에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적성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느꼈기에 아버지와 언니를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저를 걱정하시는 아버지와 언니에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면접 준비에 힘썼습니다. 예상 질문을 50개가량 준비하고, 낮은 목소리 톤을 고치기 위해 녹음을 하는 등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면접 당일 날에는 아버지께서도 응원해 주셨습니다.

“네가 선택한 일이니 말리지 않고 응원하겠다.”

“이왕 하는 거 잘하고 와.”

언니도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의 응원 덕분에 면접에서 역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기업, 대기업, 금융권에 간 친구들보다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남들의 시선에는 저보단 그 친구들이 더 부러울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제가 원했고, 이뤘기에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게 되든지 자신의 적성에 맞고, 자신이 선택한 곳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결정보단 자기가 직접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롤러코스터의 끝을 책임져라

사람의 인생이란 롤러코스터라 생각합니다. 누군가 올라갈 때 또 다른 누군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 아무리 깊이 떨어져도 언젠가 가장 높은 곳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법입니다.

현재 고3인 학생들은 아주 깊이 떨어지는 구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한다 해도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고 미래 또한 암담할 것입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해 버리면 그 어둠 속에 평생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깜깜한 어둠 끝엔 맑은 하늘이 보이는 정상일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의 마지막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높은 곳에 머무를 수

도 없고, 그렇다고 언제나 낮은 곳에만 있어야 한다는 법 또한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은 정상에 있는 날도 있을 것이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중일 수도, 가장 낮은 곳에 정체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재에 높은 곳에 있어도 늘 최선을 다하고, 낮은 곳에 있어도 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저는 제가 원했던 유통업계에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꾸준히 성장할 것입니다. 여태 겪었던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재학생 부문

햇별은 쟁쟁 모래알은 반짝

특별상 / 이해은



“사랑합니다. KDB 산업은행의 소통하는 햇님, 이해은입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제가 이루고 싶었던 꿈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과 소통하는 햇님 같은 은행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첫 번째 꿈을 이루어 제가 졸업한 중학교로 홍보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6월 KDB산업은행의 합격통지를 받음으로써 제 첫 번째 꿈의 절반은 이루었고, 10월에 제가 졸업한 중학교로 홍보를 다녀옴으로써 두 번째 꿈 또한 이룰 수 있었습니다.

꿈을 이루기까지 저는 높고 낮은 다양한 굴곡의 산들을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취업이라는 산의 정상에 오를 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가지 다짐

저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하여 금융권에 입사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은행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원이라는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다가 4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4가지 다짐은 바로 ‘내신관리, 자격증 취득, 다양한 활동 참여하기, 자신감

키우기'였습니다. 이 다짐들을 이루고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매월, 매일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꿈을 향해 달렸습니다.

첫 번째 다짐인 '내신관리'는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저 스스로와 한 약속이자 부모님과 한 약속이었기에 꼭 해내고 싶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필기한 것들을 바탕으로 시험 준비를 하며 모르는 것이 있을 땐 포스트잇에 적어 놓고 다음 날 선생님들께 여쭙보곤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놓쳤던 부분은 물론이고 다른 추가적인 부분까지 배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두 번째 다짐인 '자격증 취득'은 가능한 많이 따자는 마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자격증 취득은 제게 새로운 목표와 즐거움을 주었고, 입사시험 중 필기 시험을 치를 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취득한 14개의 자격증 중 제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한 자격증은 무역 관련 자격증입니다.

'외환 업무를 맡고 싶다.'

저에게 새로운 목표를 심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후 '무역영어'라는 분야에 도전하고자 금융투자반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낯선 과목이라 힘들었지만, 매일 새로운 무언가를 배우고 익힌다는 뿌듯함에 더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두 개의 무역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업경진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만의 강점을 만들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만 해도 제 영어 타자속도는 100타도 나오지 않고,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했기에 어떻게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하자. 우선 타자부터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하루에 한타 30분, 영타 30분씩 연습했습니다. 결국, 한타 300타와 영타 230타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컴퓨터에 대해 잘 몰랐던 저는 ITQ 자격증을 취득하고 컴퓨터 활용능력과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까지 단기간에 취득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상담사, 은행텔러 등 금융자격증과 회계자격증 등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 수업과 여러 활동에 참여하며 14개의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할 때마다 꿈 앞에 한 발 더 다가간 느낌과 함께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다시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 ‘백문불여일견’의 자세로 다양한 경험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고, 경험들이 모이면 큰 자산이 된다.”

어릴 적 부터 부모님께서 자주 해준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받으며 자란 저는 경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가치관을 정립했습니다. 게다가 은행원은 다양한 분야의 고객 분들을 만나는 직업이기에 여러 분야에 관한 경험과 지식은 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봉사활동, 환경 경제 체험대회, 상업경진대회, 취업신문반, 금융투자반 등 다양한 대회와 동아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풍선아트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활동과 말벗 되어드리기 봉사활동입니다. 서툴렀지만 작은 풍선하나로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오르면 제 입가에도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재능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매달 2번씩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 분들의 말벗이 되어드리는 봉사활동을 다니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도와드려야 할지 몰라 휠체어만 밀어드리고 왔습니다. 두 번째 봉사활동을 가기 전, 조부모님과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봐.”

충고를 듣고 어르신들의 말씀에 집중하니 어르신들의 남모를 고충을 알게 되었고, 제가 경청해드리는 것 자체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 경청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감 키우기!’입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발표하거나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면 얼굴이 빨개지고 당황하는 편입니다.

‘은행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기에 무엇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발표대회와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제 모습은 180도 달라져 있었고, 자연스럽게 밝게 이야기하는 모습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4가지의 다짐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간다면 한층 더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KDB산업은행의 햇님이 되기까지

KDB산업은행의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1차 면접과 2차 면접으

로 이루어졌습니다. KDB산업은행의 자기소개서는 다른 기업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 항목 중 지원동기 항목은 1,000자를 자필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자필로 써야 한다고? 어렵지만 자필로 쓰면 합격하고 싶다는 진심을 담을 수 있을 거 같다.’

진심을 담은 자기소개를 쓰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 각 항목에 맞는 경험을 찾고 스토리보드를 작성한 다음 쓰기 시작하니 단숨에 쓸 수 있었습니다. 쓰려고 하는 큰 키워드를 잡고, 그에 맞는 경험을 찾은 후 회사 홈페이지와 직무 기술서와 연관 지어 작성해 나간 결과 서류전형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필기시험은 4시간 동안 4개의 시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교시에는 회계 원리, 상업경제, 금융일반 등 직무지식 47문항을 풀었습니다. 전산회계 1급에서 멈추지 않고 필기와 실기 두 과목으로 나누어진 전산회계운용사 2급 자격증까지 취득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교시에는 일반 시사 논술 시험이 이루어졌습니다. 평소 논술과는 거리가 멀었던 저였지만, 서류합격자 발표가 나온 후부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술 쓰는 방법을 선생님께 배우고 연습해서 논술 실력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주제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단어였지만 주어진 문제와 신문 기사를 보며 도출해내어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3교시에는 직업기초능력평가와 인성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학년 때부터 JUMP-UP반과 NCS 대비반 수업을 들으며 배웠던 문제 유형들이 나와 무난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차 관문을 넘고 1차 면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1차 면접은 아침 일찍부터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방과 지역에서 온 지원자들을 위해 산업은행에서 숙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숙소에서 다양한 지역의 친구들을 사귀며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1차 면접은 다대다 면접, 토론면접, PT면접, 협동면접(도미노면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4가지 면접에 참여한 결과 어느새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에 합격하고 바로 다음 주 수요일에 최종면접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하기엔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1분 PR과 예상 질문들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면접 때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들이 오갔지만, 두 번째 면접 때에는 주로 시사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들을 할 거야.”

선배님들의 조언에 따라 논술과 토론면접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기사들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종면접까지 마치고 나와 본사 건물을 바라보니 더더욱 떨리고 합격자 발표 날이 기다려졌습니다. 합격자발표는 설레고 긴장되는 마음으로 친구들과 함께 확인했습니다.

“합격이야, 합격! 축하한다 혜은아.”

친구가 먼저 합격페이지를 읽고 소리를 지르며 축하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며 힘들어서 많이 울었는데 ‘합격’이라는 한 단어 모든 것을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적을 만들자

“You are a miracle!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 말은 친구들을 만날 때 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말입니다. 말하는 대로라는 말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못한다고 단정하기보다 도전하고 노력해서 스스로 기적을 만들어 낸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웃었던 날들을 모아 행복이 되고 좋아했던 날들을 모으면 사랑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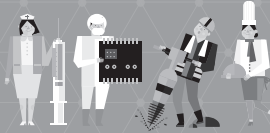
이 말처럼 저는 KDB산업은행의 햇님이 되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던 날들을 모아 꿈을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했던 날들을 모아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도전하고 달려가세요! 그 끝에 여러분의 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Part
02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졸업생 부문



전교 꼴찌 꿈의 직장 신입사원 되다

전기 기술자를 꿈꾸는 소녀

방향하는 청소년에서 효자로 거듭나기

일방통행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전교 끝씨 꿈의 직장 신입사원 되다

금상 / 최정기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씨름선수로 생활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전국 대회를 순회하며 씨름에만 몰두했기에 전국 대회 일정은 알아도 중간고사가 언제인지는 모르는 학생이 바로 저였습니다. 방학도 없이 합숙훈련을 하며 몰두한 결과 시·도 대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해서 나름대로 주변의 기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씨름이 유일한 장기이자 씨름선수가 유일한 장래희망이었던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기계과에 진학을 결정한 이유도 단지 순천공고에 씨름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합격 통보를 받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훈련 중 무릎부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씨름선수로서의 꿈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씨름에만 몰두해왔던 저는 큰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고 이제 뭘 해야 하지?’

우울한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우울해졌고 자퇴를 하기 위해 담임 선생님과 면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나도 배구선수 출신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여 교사의 꿈을 이루었다. 너도 씨름에 몰두했던 시간만큼 공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선생님의 조언에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도전해보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13개 자격증을 내 품 안에

학업에 몰두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영어나 수학 같은 과목은 기초 지식이 부족해서 수업을 따라가기 벅했습니다. 부족한 기초 지식을 쌓기 위해 중간고사 전까지 방과 후에는 집 근처 독서실에서 수업내용을 복습하고 이해할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어떤 날은 함수를 이해하지 못해 새벽 4시까지 수학 교과서와 씨름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씨름선수로 생활한 경험 덕분에 체력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 밤을 새우며 공부해 보자.’

쉬는 시간이면 따로 정리해두었던 질문사항을 선생님께 여쭙어 보았습니다.

“선배들의 취업 사례를 참고해라. 너도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다.”

담임선생님께서 격려해 주셨습니다. 공부와는 거리가 멀던 학생이었지만 단지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제게 관심을 두고 도움을 주시니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열심히 하면 대기업,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고 취업 후 진학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야간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선생님의 말씀에 학업에 대한 의지는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학기 초부터 꾸준히 노력한 결과 저는 첫 중간고사 시험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입학성적으로는 최하위였던 제가 1등을 차지할 것이라

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다른 친구들보다 공부를 늦게 시작해 출발지점이 늦었지만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첫 중간고사에서 1등을 차지한 후 학업뿐만 아니라 자격증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취업하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중요해.”

선생님과 선배님들은 모두 자격증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공분야 자격증인 전산응용 기계제도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였습니다. 처음 도전하는 기능사 자격증이었고 제도, 기계 재료 등 전공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 원리를 이해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시행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제도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Auto Cad, Inventor와 같은 설계프로그램을 직접 실습해보았습니다.

꾸준히 연습한 결과 첫 기능사 자격증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기계과에서 1학년 중에서 가장 먼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내기능대회 CAD 부문에서도 3학년 선배들과 경쟁하여 당당히 동상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첫 자격증 취득 후 제 자신감은 더 높아졌고 취업에 대한 관심은 커졌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에 입사하면 전공인 기계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수 있고 입사 후에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야간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4년 뒤에는 대졸 사원들과 같은 직급으로 근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래서 기계과 자격증뿐만 아니라 화학 분야 자격증인 위험물 기능사, 환경기능사 자격증에 도전하였으며 전기분야 자격증인 전기기능사 자격증에도 도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생활 3년 동안 총 9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독학으로 워드프로세서, ITQ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4개를 취득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고등학교 3년 동안 총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교내기술상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장학생으로 추천받아 장학증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13개의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했지만 낙방한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낙방한 이유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시험에 낙방하더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 이라는 생각에 결코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도전하였습니다.

목표는 차세대 지역난방 선구자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덧 저도 3학년이 되어 공개채용을 준비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던 회사는 한국서부발전입니다. 첫 입사 지원이기 때문에 경험 삼아 시험을 치른다는 생각을 했지만 1차 서류전형과 2차 필기시험 전형까지 당당하게 합격하여 3차 면접 전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첫 시험에서 당당히 합격하여 축하를 받고 싶다.’

이런 저의 상상과는 다르게 저는 15명 중 9명을 선발하는 면접 전형에서 불합격의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경험 삼아 입사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 역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불합격 요인

에 대해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면접에서 너무 긴장하여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것이 불합격의 원인인 것 같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조언을 되새기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사람이 많은 시내 한복판 광장과 버스터미널에서 혼자 자기소개를 하고 후배들 앞에서 압박면접연습을 하는 등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이후 에너지 공기업에서 채용공고가 나오면 매번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노력이 부족했는지 3학년 때만 5번의 낙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등학교 생활 동안 그토록 바라던 에너지 공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졸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계속되는 낙방에 자신감은 땅끝까지 떨어졌고 먼저 취업을 한 친구들을 볼 때면 저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또한 노력한 만큼 보상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우울해지기도 했으며 취업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연아의 7분 드라마라는 책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99도까지 열심히 온도를 올려도 마지막 1도를 넘지 못하면 물은 영원히 끓지 않는다.’

‘나도 지금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남겨두고 있겠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취업준비를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노력 끝에 결국 2016년 7월에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개 채용에서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합격통보를 받자마자 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들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 정문에는 입사를 축하해주는 플래카드가 걸렸고, 주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축하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고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입사 후 1개월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첫 부서 출근을 하던 날의 긴장감과 설렘이 4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현재 저의 업무는 기계 안전팀에서 공무 부분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역난방 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사회생활 경험도 부족하여 가끔은 상사에게 쓴소리를 들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업무량이 많을 때는 밤늦게까지 초과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처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모두 보상 받는다.’

그럴 때마다 이런 신념으로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의 목표는 지역난방 기계설비에 대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퇴근 후에는 틈틈이 부족한 영어공부와 기계설비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으며 추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한양대 기계공학과에 진학하여 기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쌓을 예정입니다.

특성화고, 탁월한 선택

지금까지 경험을 되돌아보았을 때 제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했던 것이 제 인생의 선택 중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순천공고에 진학했기 때문에 씨름밖에 몰랐던 제가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었으며,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에 합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한 것이 후회 되지 않니?”

가끔 선배님들이 묻기도 합니다. 인문계고등학교를 졸업한 다른 친구들 처

럼 대학교 캠퍼스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도 하지만 제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한다면 3년의 직장생활 경력을 쌓은 후 재직자 특별전형을 통해 언제든지 야간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지금 저의 삶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은 신입사원이지만 제 목표인 지역난방 기계설비 전문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비록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처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 굳건히 믿기에 어떠한 시련이 닥치더라도 정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내어 지역난방 기계설비에 대한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꼭 이루어낼 것입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전기 기술자를 꿈꾸는 소녀

은상 / 정혜주



일반계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사이에서 진로 고민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이은 회사 탈락 소식에 좌절하고 있을 친구들에게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했던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기에 누군가에게 이 글이 용기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겁쟁이, 자퇴하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2번 한 특이한 이력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일반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한 번은 제가 졸업한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입니다. 마이스터고에 관심이 있었으나 중학교 3학년 때 일반계고교를 선택한 이유는 주변의 편견이 주는 두려움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마이스터고에 관심을 갖고 진학하는 것이 어떨지 말을 꺼냈을 때 주변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너 성적도 높은데 왜 굳이 그런 학교에 가냐?”

“마이스터고? 그래 봤자 공고 아니야?”

“대학은 나와야지.”

대충 그런 반응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에 많은 관심이 있

였지만 진로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받은 조언들은 저에게 막연한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만류하였기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착한 딸이 되기 위해 ‘위험성 없이 평범하게, 남들 하는 대로’ 인문계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렇게 다니게 된 일반계 학교에서는 아무런 목표도 없이 높은 성적만을 위해 종일 공부를 했기에 성적이 상위권으로 잘 나와도 성취감보다는 공허함이 저를 채웠습니다.

‘뭘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가.’

특별한 꿈이나 막연한 목표조차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과 학과를 정하는 선배들의 모습은 저를 더욱 좌절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생활하기를 한 학기, 남들보다 1년 뒤쳐지는 것이 무섭고 결정에 대한 책임이 두려웠지만, 폭탄선언 후 마이스터고 입학을 하고자 인문계 고교를 자퇴하였습니다. 두려움이 유달리 많았던 제가 스스로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님을 어렵게 설득하여 자퇴를 한 이후 공백 기간에 어학연수로 필리핀에서 두 달간 생활하면서 정말 잦은 정전을 경험하였습니다. 냉장고 속의 음식들이 다 상해 버려야 하고, 공부를 하다 말고 어둠 속에서 휴대용 전등을 찾아 더듬거리던 기억은 전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 준 소중한 경험이자 제가 전기를 전공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기를 공부해서 기술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전기 때문에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다.’

욕심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있는 마이스터고인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과에 입학하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당찬 꿈을 안고 입학했지만, 부모님의 품을 떠나 또래 친구들과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정말 즐겁게 지내느라 그 결심은 점차 잊혀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1학년 성적은 과에서 상위 39%로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니다. 재학 시절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기에 그 성적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전교권도 해보고 일반계고등학교에서 한 번 공부했던 내용이니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자만심이 문제였습니다. 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부모님의 얼굴이 생각나 눈물이 났습니다. 선배들이 다니는 회사들을 찾아 일일이 채용공고를 찾아보고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을 찾아 준비하였습니다. 스스로 책을 사서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각 분야의 자격증을 하나하나 취득해 나갔습니다. 저와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1학년 때 기초가 되는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였기에 그 내용이 심화되는 2학년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어렵겠어. 교과서를 꼼꼼히 공부하자. 현재 수업은 물론이고 부족했던 공부를 위해 1학년 교과서를 2번 이상 독파하는 거야.’

그 시도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전공 실습에서도 배관을 굽힐 때는 힘을 많이 써야 하기에 남자친구들보다 시간상으로 불리했지만, 방과 후 연습을 통해 배선하는 시간을 단축하여 수행평가에서 중상위권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또한, 시험기간에는 기숙사 의무 소등시간 이후에 사감 선생님 몰래 옷장 안에서 스탠드를 켜놓고 밤새 공부를 하기도 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과에서 9등으로 상위 11%의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여름 한국수력원자력 채용 공고가 나와 지원하게 됩니다. 서류 전형부터 영어 시험, 전공시험 및 적성시험 등에 수월하게 합격하여 열정적으로 공부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면서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잃은 느낌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의 위로와 선생님들의 격려로 다시 자신감을 찾고 취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에는 삼성전자 채용시험에서 또 최종탈락하게 됩니다. 다른 친구들은 한 번 또는 두 번에 척척 붙는 면접을 두 번이나 떨어지니 의기소침해졌고 주변에 말은 못해도 실망감이 매우 컸습니다.

‘면접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탈락했지? 그래도 믿어주고 응원해 주는 부모님께 뭔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아쉬운 마음은 잠시 잊고 또 취업 준비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최종면접에서 또 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 대본만 A4용지로 40페이지를 준비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는데 문제일까? 나는 공부를 해도 항상 면접에서 떨어지니 더 공부를 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고, 합격한 친구들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못난 저 자신이 불쌍하고 미워서 울컥울컥 눈물이 솟기도 했습니다. 늘 응원만 해주시던 부모님께서도 저를 걱정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제 걱정을 하실 때마다 심려를 끼쳐드리기 싫어 부모님께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진짜 스스로만 포기 안 하면 언젠가는 꼭 좋은데 간다고 하더라. 조금만 더 믿고 기다려 주세요.”

7번의 면접 끝에 받은 합격

이후 발전회사에 취업원서를 냈지만, 또다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제 기대조차 되지 않고 반쯤은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연이은 최종탈락에 주변에서 저를 측은하게 여기는 시선들이 싫어서 공무원 면접 결과를 기다리며 친구들 몰래 숨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덧 12월이 되고 한 학급에 미취업 학생은 3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두려워 친구들에겐 합격 발표 날짜가 미뤄졌다며 거짓말을 하고 혼자 몰래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 낸 것입니다.

‘스스로만 포기 안 하면 꼭 좋은데 간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제가 정말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믿기지 않아서 말이 안 나오고 다리에 힘이 풀린다는 것을 그 날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순간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렸습니다.

“애들아. 나 합격했다!”

한 마디에 우리 반 친구들은 물론 소식을 들은 다른 반 친구들과 선생님 들께서도 제게 우르르 몰려와서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평생 받을 축하를 오늘 다 받는구나!’ 생각했던 그 날은 아직도 제게 꿈같습니다. 그 감정은 첫 채용시험에서 쉽게 합격했다면 감히 느끼지 못할 기쁨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동안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해 준 저 자신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마이스터고에 입학하여 많은 좌절 끝에 취업에 성공한 제가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항상 답은 내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로 결정을 할 때 부디 마음속에 있는 작은 소리를 무시하고 주변의 큰 소리에만 귀 기울여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각자에게 잘 맞는 회사와 시기가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 회사에 탈락했던 이유는 그 회사와 제 성향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랬을 것입니다. 물론 '나의 회사와 만나게 되는 시기'는 남들보다 늦을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행운은 준비와 기회가 만났을 때라는 말이 있듯, 언젠가 그 시기가 왔을 때 반드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곳곳이 준비하세요. 그렇다면 기회가 왔을 때 그를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저는 스스로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실패는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을 믿고 실패할 때마다 느낄 좌절감을 이겨내고 그동안 고생한 자신을 토닥여가며 다시 일어서주세요. 여러분의 행운을 빌며 글을 마칩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방황하는 청소년에서 효자로 거듭나기

은상 / 임승일



300여 명 중 27등으로 상위 10%의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를 입학했던 저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졸업할 무렵 성적이 중하위권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3년간의 나태한 생활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고도비만 진단을 받을 정도로 살이 썩었습니다. 그리고 도전이라는 단어는 두렵기만 하였고 불안한 마음으로 겨우 시작했던 일들도 작심삼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 회장을 하면서 판사, 의사, 경찰이 되겠다는 멋진 꿈으로 가득했던 자신감 또한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후회하면서 진로 문제를 고민하던 중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입학 설명회에서 만나게 된 특성화고 선배님은 제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꿈을 그리다

진학 때문에 고민을 할 때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고졸 공채를 통해 삼성전자에 입사한 선배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이 진로 선택의 시작점이야.”

인문계로 갈 것인가, 특성화고로 진학할 것인가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진로 선택의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제 인생이 바뀔 것

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은 곧 저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인문계로 진학하기엔 많은 것이 부족하고 준비가 덜 되어 있어. 잘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며 저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전공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러 제품을 통해 세계에서 인정받는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대기업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이 생긴다. 능력을 인정받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제품 개발을 하는 개발자가 되는 거야.’

그 후 담임선생님께 조언을 구하였고 평소 조립에 대한 감각과 손재주를 눈여겨보신 담임선생님께서 10여 년 동안 기계 설계 분야에서 국가 대표를 배출하고 있는 나주공업고등학교를 추천하여 주셨고 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입학을 기다리던 중 3 겨울방학 때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기능영재반 제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배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능영재반 선발에 응시하였습니다. 경쟁이 무척 치열했지만, 설계와 기계 가공에 대한 감각, 끈기, 집중력, 강한 열정 등을 인정받아 기능 영재로 선발되었습니다. 평일과 주말 방학과 공휴일 할 것 없이 매일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2D 설계와 3D 모델링 그리고 하루 10시간 씩 진행되는 기계가공 작업까지 고된 훈련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서 하는 고된 기계 작업을 하니까 새벽에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어. 하지만 포기 할 수 없잖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자가 되고야 말겠어.’

꿈을 생각하며 이겨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는 어렵고 힘들기만 했던 작

업들은 익숙해졌고 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기술능력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생활, 긴장된 학교생활을 통하여 저의 모습은 고도비만이 아닌 튼튼한 근육질의 남자로 변화되어 있었고 저도 모르는 사이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볼품없던 저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후 2학년에 올라와 대기업과 공기업 입사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의 모임인 취업역량강화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반복되는 도전을 통해 약 1년 만에 총 5개의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방학과 휴일도 없이 밤 9시까지 진행되는 취업역량강화반 수업을 통해 취업입사 필기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에 집중하여 실력을 쌓아두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3학년이 되자 취업이라는 현실이 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꾸준히 준비해왔기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수백 번 고쳐 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였지만, 낙방을 하자 스스로 조금 위축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품개발자가 꼭 되어야겠다는 꿈을 이루고 싶다는 압박감과 부담감으로 힘들었습니다.

삼성전자 서류전형 결과가 나오기 전 사촌 형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고, 네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 회사가 손해지’ 라고 생각해.”

형의 말에 저 스스로를 다독이며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 뒤로 자신감

을 가지고 임했더니 서류전형, 필기전형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약 2년간 제가 이룬 노력의 결실들을 아낌없이 펼쳐 보인 결과 전라남북도에서 삼성전자 고졸공채를 혼자 통과하는 놀라운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졸업식 때 만나게 된 중학교 친구들도 부러워했습니다.

“3년 전 너의 선택이 옳았구나!”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3년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3년 후에 대기업에 들어가서 꼭 효도하겠다고 약속했던 말을 지키게 되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개의 학교의 동시 졸업식의 대표로 졸업장 수여를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 간의 고등학교 생활을 끝마친 후 회사라는 사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삼성전자에 입사한 후 여러 사업부의 여러 제품군 중 어떤 제품을 개발하게 될지 설레었습니다. 1개월의 입문 교육이 끝난 후 저는 생활가전 사업부에 배치되었고 세탁기 개발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개발업무는 아이디어를 쥐어 짜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만큼의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살아 움직이는 부서입니다.

학력에 대한 편견을 깨다

사실 저는 입사 전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난 고졸인데, 기초지식도 부족하고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

어찌지? 학벌에 대한 선입견을 내가 심어주면 어떡하지?

“고졸이고 막내인 만큼 모르는 것이 많고 누구도 너의 실수에 무지에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봐. 너의 궁금증이 새로운 발견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많이 궁금해 하고 질문도 해.”

선배님의 격려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와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 사고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떠한 원리가 있다고 하면 그 원리에 대해 이해하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저 조건이 아니라면? 저 원리를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면 어떨까?’

지금은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버릇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사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도전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진학은 제 인생의 반환점이자 첫 진로선택 그리고 도전이었습니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했고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중했습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 입사’라는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새롭게 그린 꿈을 이루어 내고 사춘기의 방황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불효를 효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부모님과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나 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성공의 시작은 도전이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신의 진로를 찾지 못해서 고민 중이거나 진로를 향해 가는 길이 험난한 친구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고 집중하고 노력하면 고졸이라는 사회적

편견은 분명이 없다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틀리든 맞든 내가 하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졸업생 부문

일방통행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동상 / 이해성



치열한 입시경쟁을 보며 과정에 비해 얻는 것이 그다지 가치 있지 않다고 느낀 저는 누구나 가는 길보다 스스로가 열성을 보일 수 있는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특성화고등학교들의 입학설명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미림마이스터고등학교 등 여러 학교들의 입학 설명회를 다니며 진학에 대해 고민하였습니다.

“특성화에 다니는 재학생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적을 찾아 꿈을 향해 스스로 나아가는구나. 그래, 대학은 취업 후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설명회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아주 먼 거리를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4시간 넘게 등교하는 학생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미래를 위해 4시간의 통학 거리를 견뎌내는 선배님의 모습에 반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는 이유도 모른 채 공부만 해왔던 저는 자신들의 미래를 찾아 더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반성하고, 엄마를 서운하게 만드는 특성화고등학교 진학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배운다는 건 멋진 꿈을 꾸는 것

“특성화고에는 선취업 후진학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먼저 취업을 한 후

전문가로서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후에 진학해서 학문의 분야를 넓힐 기회가 있어요.”

실업계라는 고정관념이 아직 남아있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걱정스러웠는데 이렇게 말하니 어머니께서도 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진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의 뜻대로 결정한 진로를 믿어주셨습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입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성적 커트라인도 높았고, 면접도 봐야 했습니다. 면접을 보고 나오는 길은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제 인생의 첫 면접은 합격이었고, 저는 그렇게 인생을 바꾸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에 진학 후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밤에 다시 눈을 감는 순간까지의 저의 행동은 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무역, 금융, 회계 등 여러 전문과목을 배우며 흥미를 찾고, 자격증을 취득하며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뿐만 아니라 미소 짓는 연습, 예절, 관련 분야에 관련된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3년 동안 상업 실무 지식과 컴퓨터 관련 실무 작업 등을 쌓으며 사회에 진출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달리 엄격했던 교칙을 지키며 단정하고 올바르게 커 나갈 수 있었고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외환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 체험학습을 다니며 시야를 넓혀갔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자 공부하고 더 많이 알려주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생활지도와 진로지도, 교과지도 및 취업상담에 힘써주셨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닦은 길을

가는 저에게는 든든한 선생님들과 같은 꿈을 향해 함께 가는 친구들이 있어 주었습니다. 최고의 근무환경을 자랑하는 대기업 및 우량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선배님들을 보며 청년실업 시대를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커졌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배운 전문 과목 중 회계를 좋아했습니다. 돈과 숫자를 다루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수학에서도 계산문제는 자신 있었고, 저의 꼼꼼한 성격과도 잘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의 3개의 학과 중 회계를 가장 많이 배우는 인터넷비즈니스과에 진학하자. 회계법인에 취업하고 싶어.’

저는 국내에서 '빅4'라 불리는 4대 대형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3학년 1학기가 끝나가던 중 담임선생님께서 저를 취업지도부실로 부르셨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삼일회계법인의 취업의뢰가 들어온 것입니다.

“저는 삼일회계법인에 입사하고 싶어요.”

제 말을 기억해 준 선생님께서 취업의뢰가 들어오자마자 불러주셨습니다. 삼일회계법인은 서류를 통과하고, 1차 면접을 보고 합격 후, 여름방학 한 달 동안의 인턴과정, 그 후 인턴과정을 토대로 2차 면접에 합격해야 입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보완하고 반 친구들이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면접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1차 서류에 합격하고, 밤새 반듯하게 다린 교복과 땀을 흘려가며 닦은 새 구두 같은 광나는 구두를 신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공포체험보다 두려운 압박면접일까? 나의 핵심가치인 자신을 부각하며

면접에 임하자. 자신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산된다. 자신감 있게 대답하고 면접 내내 미소를 짓자.’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담임선생님과 친구들이 응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고 면접에서도 긴장하지 않고 잘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반에서 가장 먼저 출근길에 나섰고, 여름방학부터 한 달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는 항상 상사보다 일찍 출근하였고, 메모하는 습관으로 상사들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며 일을 배워갔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인턴이 끝난 뒤, 2차 면접을 봤을 때, 당당한 정직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인생은 숙제가 아니라 축제다

취업을 할 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건 학교였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조별 과제 덕분에 팀원들과 신뢰를 쌓는 법을 배웠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교칙을 지키는 습관을 길러 주었기에 업무 지침을 잘 이해하고 지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저의 비즈니스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답답한 일방통행 길을 가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저기 더 넓고 환한 길이 있다’고 말해주는 곳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해서 고달픈 후배들이 있다면 틀에 박힌 인생을 사는 것엔 자신에게 무척 미안한 일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축제에서 구경꾼이 될 것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고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는 사람이 아

니라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페이스북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꿈을 완전히 잊어버리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리, 선박, 전기, 회계, 애니메이션, 디자인, 로봇, 컴퓨터, 금융, 미용 등 대학교의 학과들 못지않은 특성화고등학교들이 많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Part
03

미래를 향한 힘찬 출발!

성인 부문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살랑살랑~ 취업지원관의 나비 날갯짓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시작은 미약해도 끝은 창대하리라

금상 / 홍성건



한만은(가명) 학생은 2학년 때 맡았던 아이입니다. 작년에는 옆 반에 있어서 잘 몰랐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일주일에 네 번 들어가는 수업시간에 항상 엎드려 있는 친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경력이 4년째인 초보 교사였고 이제 막 정규직으로 임용된 터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만 알 뿐 학생들의 마음을 바라보는 훈련이 전혀 안 되어 있음을 실감하던 터였습니다.

만은이가 눈에 들어 온것은 2학년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우리 반은 성적순으로 가장 낮은 아이들이 오는 반이었는데 만은이가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담임제도로 전기과의 모든 아이들을 알고 있는 것은 다행이었지만 아이들의 개별 특성을 파악하는 데는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은이가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신기합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수업시간에 항상 자는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은이는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오자 교사로서의 양심이 발동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자 상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만은아 힘을 내렴

만은이와 이야기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러했습니다. 엄마는 돈 많은 사람을 만나 그분의 두 번째 아내가 된 것, 엄마가 아주 젊었을 때 만은이를 출산하였다는 것, 만은이는 지금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엄마는 아버지의 집에서 쫓겨나서 혼자 저를 키우게 됐고 아버지에게서 받은 얼마의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지만 얼마 못 가서 파산했어요. 이후 술집을 경영하게 됐고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한 술로 인해 알코올 중독자가 되셨어요.”

만은이의 엄마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다. 이때부터 만은이의 삶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알코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엄마는 그때부터 만은이를 때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만은이는 엄마가 때리면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불쌍했고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만은이는 점점 학교 공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는 날도 있었어요. 엄마가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었어요.”

만은이의 이런 행동이 주변에 알려졌는지, 엄마는 그때부터 알콜센터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나온 뒤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삶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상담하고 있는 그순간에도 만은이는 엄마를 생각하며 지난날을 생각하며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가 없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흐음 흐음”

“만은아, 선생님이 엄마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곳으로 연락을 해 보마.”

저는 만은이의 얘기를 듣고 여기저기 연락했습니다. 경기도 알코올센터를 연락을 해서 만은이의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도 찾게 되었습니다. 만은이의 엄마는 허리디스크로 심한 고통을 앓았는데 그 병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만은이의 학비는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찾아서 ‘담임추천’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엄마의 알코올 중독 문제도 알코올센터 도우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의 중독 상태가 너무 심해서 계속 가정방문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취업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만은이의 수업태도 및 학교생활 전체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이후, 만은이와의 일을 까마득히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학교는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했으니 아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는 중이었을 겁니다. 아직은 전기과만 시행하고 있던 터라 그다지 인기는 없었지만, 그 프로그램의 혜택에 눈길을 두고 있는 친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만은이도 그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병역혜택은 물론 계속해서 취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두 대학교에

진학해야만 취업을 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서 부모님들은 이 프로그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은이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빨리 경제적인 자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비록 성적은 최하위 권이었지만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었기에 선생님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마침내 해당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여름방학 때부터 훈련을 받아서 8월 말까지 직장예절 및 교양, 그리고 전공훈련을 받게 됐고 9월 초에는 취업을 나갔습니다.

만은이의 화려한 귀환(?)

저는 부임을 한 이후 처음으로 아이들을 졸업시켰습니다. 삼 년 동안 키운 애들, 우여곡절 끝에 졸업장을 받는 아이들을 보니 감격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만은이는 취업을 하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졸업한 지 석 달 후, 만은이는 말끔하고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중에 아주 잘 나갈 때 선생님 앞에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낼 겁니다. 전기 쪽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 기계 쪽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알아보니, 6개월 경력만 있으면 면접만 보고 입학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대견스런 만은이를 보니, 지난날 같이 부둥켜안고 울며 얘기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저도 만은이 덕분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얼마전, 만은이의 친척 동생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려고 했던지 카톡으로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카톡 배경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속에 만은이를 닮은 딸아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만은아, 네가 결혼해서 딸을 낳아 잘 키우고 오손도손 잘살고 있으니 나도 기쁘다”

“〈산학연계 취업맞춤반〉으로 훈련을 받고 취업했던 곳에서 〈산업수요기능 인력〉으로 병역특례까지 받아 군복무를 마쳤어요. 이후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직급도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월급도 넉넉하게 받고 있습니다.”

만은이가 화려하게 변신을 했습니다. 비록 이전에는 미약해서 아무도 눈길 한번 안 주는 사람이었을지라도, 지금은 창대하게 가정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후세까지 책임지는 성실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술은 국가의 기반이요 근간임을 확신합니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내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은상 / 이성규



학생 취업지도 사례에 대한 지역 언론사 기자와의 인터뷰 중 ‘교육철학’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머릿속이 텅 빈 것처럼 어떤 답변을 해야 할지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임기응변으로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무사히 지나갔지만, 교사로서 교육철학이 명확하지 않다는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인터뷰 후에 나의 교육철학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본 수기의 주인공인 태원이의 전화가 걸려왔다.

“선생님 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태원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업하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했니?” 태원이에게 되물었다. 그랬더니 공기업에 입사하기 위해 한 여러 가지 활동을 얘기해 주었고 더 자세한 내용은 만나서 상담하기로 하고 통화를 끝냈다. 그때 나의 스마트폰 바탕화면의 글귀가 마음에 조각되어지는 것처럼 훑 들어 왔다.

‘시작하는 방법은 그만 말하고 이제 행동하는 것이다.’

월드 디즈니가 나에게 꾸짖는 것 같았다.

이후 나의 교육철학은 ‘실천하는 꿈’이 되었다.

'선생님! 서울대 가고 싶습니다.'

학기 초 교장선생님께서 직접 학과로 전화를 준 적이 있다. 한 학생이 자신은 서울대에 가기 위해 우리 학교에 입학했다는 포부를 교장선생님께 밝혔으며, 유의 깊게 살펴보라는 말씀이셨다. 당시 1학년 수업이 없던 터라 '참 당돌하고 특이한 학생이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 당돌한 아이가 바로 태원이었다.

하지만 1년 뒤 태원이의 꿈을 바뀌어 있었다.

“전 선취업 후진학을 하고 싶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며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차게 이야기하는 태원이를 보며 학교에서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교육한 내용이 학생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2014년 2월, 설레는 마음으로 쌤 배정받은 학급 명령을 살펴보고 있던 나에게 낯익은 이름이 보였다. 바로 '손태원'학생 이었다. 개학 첫 날, 학급조직을 구성하는데 학급 반장을 해보겠다는 학생이 선뜻 나서지를 않아 고민하던 끝에 나는 태원이를 임시 실장으로 지목하였다. 임시 반장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반장이 된 태원이에게 나는 여러 가지 미션을 주었다. 그 중 태원이가 가장 힘들어했으면서도 뿌듯해 했던 것은 '우리 반 꼴찌와 친구를 해서 꼴찌 탈출시키기' 미션이었다. 작년 태원이 담임선생님께서 '태원이는 매사에 열심히는 하는데 교우관계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지적했던 것이 떠올라서 내린 미션이기도 했다.

“조금 어려운 일인데 태원이가 할 수 있을까? 무거운 짐을 지게 한 것 같

아 선생님이 미안하구나.”

“선생님 제가 해 볼게요.”

태원이는 꼴찌 학생의 주변을 맴돌았다. 나도 담임으로서 꼴찌 학생이 공부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지원하였다. 하지만 한 학기가 지나고 여름 방학이 다가올 때까지 꼴찌 학생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오히려 태원이를 꾸짖기도 했다. 그 무렵 나는 교육청에서 국토 탐방을 통한 ‘사제동행프로그램’ 공문을 보게 되었다. 한창 속을 썩이던 우리 반 문제 학생 3인방과 함께 국토탐방을 신청했다. 그 활동을 하던 중 우리 반 꼴찌 학생이 태원이를 칭찬했다.

“1학년 때는 태원이가 속된 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재수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2학년 때 보니 공부도 도와주고 좋아요. 필기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태원이가 미션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고 고마웠다.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날 무렵, 꼴찌 학생은 23등으로 꼴찌를 벗어나 친구들 모두에게 박수를 받았다.

내 인생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2학년이 마무리되고 3학년이 되었다. 우연인지 필연이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3학년 담임이 되었고, 태원이는 또 우리 반 학급 명렬 13번에 있었다. 나는 담임으로서 태원이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 아니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3월, 진로상담을 하는데 태원이가 볼썽 모바일 메신저 친구 한 명을 보여주었다.

“이게 뭐니?”

“선생님,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나?”

“제 꿈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하러 인천에 있는 회사에 찾아갔어요. 취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인사 담당을 하는 분의 연락처까지 받아왔어요.”

놀라웠다. ‘과연 나라면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지원해 주면 태원이가 꿈을 이룰 수 있겠다는 믿음 들어 흥분됐다. 그러던 중 5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전반기 공채를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태원이는 1차, 2차 서류까지 무난하게 통과했다. 하지만 3차 인·적성검사에서 예상치 못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충격이었다. 특성화고 학생이 토익을 준비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에 토익 점수 660점을 가질 정도로 준비한 태원이의 탈락은 나에게도 굉장한 충격이었다. 답답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삼성, SK 등 다양한 곳에 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꼭 최종 면접 또는 인·적성검사에서 고배를 마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바심이 생겼다. 혹시 ‘태원이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졸업하면 어찌나’하는 불안감이 내 마음속에 있었다.

“태원아, 9월 대학 수시 모집 때 보험차원에서 대학 원서를 써 두자.”

나의 권유에 태원이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선생님 저는 꼭 취업을 하고 싶어요. 11월에 후반기 인천국제공항공사 공채가 있으니 염려 마세요.”

태원이의 눈빛이 결의에 차 있었기에 믿고 함께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하지만 11월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반기 공채에서 3차에서 또 떨어졌다. 이제는 앞이 캄캄하였다.

도무지 답이 보이지 않았다. 어느덧 2015년 11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기서 태원이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면 나는 교사로서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태원이와 마지막 희망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때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채가 거의 동시에 나의 눈에 보였다.

“선생님, 저는 두 곳 모두 원서를 써 보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힘들겠지만, 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 서류전형은 두 곳 모두 무난하게 통과하였고 2차에서는 미션이 주어질 것이란 이야기를 들었다. 그날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있던 하루 전이었다. 나는 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이라 사전 교육을 타 학교에서 받아야 했다.

“태원아, 하교하지 말고 저녁에 컴퓨터실에 대기하고 있어. 선생님이 교육 마치고 바로 달려갈게.”

나는 감독 교육을 받고 태원이에게 달려갔다. 국민연금공단의 다양한 자료와 기출 문제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던 중 2차 미션이 나왔다. 미션의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역할과 방향, 직장예절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 내용을 2시간 만에 제출해야 한다. 다행히 작년에 지원한 경험이 있어서 준비된 자료로 1번 과제는 다소 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2번 과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선생님, 역할극을 해보면 어떨까요?”

친구들의 제안을 기초로 과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며칠 뒤인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 공기업을 골라가는 놀라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태원이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값지고 귀중한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다.

태원이가 대학원서도 내지 않고 오직 취업에만 전념할 때 담임교사인 나는 걱정만 했다. 연말은 다가오고 학교 1등 학생이 잘못하면 취업 재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이 캄캄했다. 그러나 오히려 태원이는 담담했다. 꿈을 향해 걸어온 자신의 여태의 생활을 후회하지 않았기에, 또 자신을 믿었기에, 최선을 다 했기에 태원이에게 기적과도 같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주어지지 않았을까?

we can do it!

우리 학교 어느 반 급훈 중 ‘엄마 계 모임에서 자랑할 수 있는 아들이 되자’라는 문구가 있다. 사실 태원이에게는 공부 잘하는 형이 있다. 형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해서 현재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이다. 예전부터 어머니는 태원보다 형을 많이 자랑스러워하셨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형도 저를 자랑하고 다녀요.”

태원이 뿐 아니라 꼴찌 학생도 병역 특례기업에 입사해 여전히 우정을 나누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얼마 전에 태원이와 꼴찌 학생이 후배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과 취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해 주는 특강을 해주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그 어느 선생님보다 행복한 교사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반짝이는 눈으로 경청하고 있는 재학생들을 보니 또 다른 열정이 내 안에서 꿈틀거림을 느껴 벅차올랐다.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성인 부문

사랑사랑~ 취업지원관의 나비 날갯짓

동상 / 송영화



나의 말과 행동이 학생들에게 나비의 움직임과 같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특성화고에서 산업체우수강사와 취업지원관으로 활동하면서부터입니다. 작은 날갯짓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자아낸다는 '나비효과'가 스크린에서만 재현되는 허상이 아니라, 이 업계에서만큼은 가능한 일이고 간혹 실감한다는 것을 부정할 취업지원관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최종면접에 합격하였습니다.”

희소식을 듣자마자 학생과 서로 얼싸안아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단연코 취업지원관이라는 직업적 매력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항공사와 대기업 재직 경력과 헤드헌터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4년 전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특성화고에서 산업체우수강사로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경기도교육청 취업지원본부센터에서 취업지원관으로 구인처 발굴과 특성화교육 관련 업무 지원을 하며 특성화고 학생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면을 통해 그동안 함께 취업을 준비했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성을 강조하여 합격으로 이끌어라

“학생을 추천할 때 특별한 자질과 역량이 필요한가요?”

“일은 저희가 가르칠 테니, 인성 좋은 학생만 보내주십시오.”

취업담당자가 이렇게 답을 할 때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한번은 인사담당자로부터 항의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 학생은 도대체 왜 어른을 봐도 인사를 하지 않느냐는 것과 업무시간에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작거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찾아가는 취업교실 강의 진행으로 일선 학교에 방문하면, 이런 항의전화가 결코 거짓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복도에서 눈이 마주쳐도 무시하는 학생의 태도는 결국 직장동료에게 인사하지 않는 불순한 신입사원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직생활에서 인사는 매우 중요해. 인사는 인간관계의 시작이자 직장인의 기본자세이니까 면접장에 들어서면 반드시 밝은 미소로 크게 인사드려라. 인사를 할 때 고개는 정확히 숙이고 눈동자만 반쯤 치켜들어 눈치를 살피는 학생의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하자.”

제가 H공고에서 면접을 지도했던 남학생은 언변이 뛰어나 직장생활을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다만 학교생활 중에 취득한 자격증이 거의 없고 학과성적 또한 만족스럽지 못해 기업체에서는 그다지 선호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유쾌한 성격과 바른 인성을 살려보자는 것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법부터 자신의 강점을 노출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지도하였고, 다행스럽게도 면접 당일 ‘즉시 채용’이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사담당자나 면접관은 기성세대입니

다. 기성세대가 중점적으로 눈여겨보는 ‘바른 인성’은 결코 면접에서 지는 법이 없습니다.

최종 면접 탈락의 이유를 찾아라

올해 2월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여학생은 고교 3년 동안 학교에서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장 160cm도 안 되는 아담한 체구이지만 민첩함과 아무진 말투는 사회 초년생이라고 보기에는 어색할 만큼 너무나 노련하여 간혹 사람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학기 초부터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한국전력공사 등 대기업과 공기업 학교추천서는 모두 그 학생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최종면접에서만 큰 매번 불합격이라는 고배를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의 불합격 요인을 파악하자. 그 문제점만 개선된다면 학생은 분명 역량이나 자질 면에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 아래 학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취업지원관은 단기간 학교에 투입되기 때문에 현직 교사보다 학생과의 친밀함이 부족합니다. 고집스러운 학생의 인식을 개선한다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혹시나 학생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찌지?’

매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던 차에 저는 당시 함께 근무한 취업지원관 선생님에게 학생의 외향적 이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보았습니다. 역시나 그 학생은 능숙함이 지나쳐 자칫 경솔해 보인다는 것이 저와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맹점이 결국 최종면접에서

부정적인 평가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과거 헤드헌터로 활동하면서 인사담당자와 기업체 임원들과 자주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임원이나 관리자는 이미 1차 실무면접에서 업무능력을 검증했기 때문에 인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들을 통해 이런 말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신입사원의 업무 능력이 거기서 거기이고, 성격인 부분이 기존 구성원들과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이 여우처럼 노련한 모습은 그리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학생의 강점 중 하나인 철두철미한 준비성은 유지시켰습니다. 지원하는 회사가 대기업이만큼 기업현황 분석은 필수적이었고 틈틈이 회사 홈페이지에 실린 보도자료를 숙지하도록 하여 업무이해도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지나친 자신감 노출로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면접 발언 중간 중간에 사회 초년생답게 신선한 멘트도 살짝 애드리브로 추가해 보았습니다.

결국, 3월부터 12월까지 줄곧 최종면접에서 탈락했던 학생은 겨울방학 기간인 1월 중순에 2차 면접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고 예기치 않은 사장님과 의 3차 독대 면접 관문에서도 고등학생답지 않은 명석함이 있다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올해 2월초 현대그룹 임직원으로서 고졸성공 신화가 되었습니다.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요. 이제 선취업 후진학 계획을 세워야지요.”

전화를 해 보니 역시나 당차게 사회생활을 임하고 있습니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을 노려라

다음은 제가 산업체 우수강사로 근무하면서 2학년 때부터 지켜본 학생의 사연입니다. 소심한 표정으로 맨 앞자리에서 혼자 수업을 듣던 모습이 안타까워 일찌감치 취업 준비를 같이해 보자고 제안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워낙 내성적이어서 다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얼굴이 빨갱게 달아올라요. 자꾸만 눈도 땅으로 떨어지고요.”

학생도 고민이 많았지만, 다행히 목표한 회사에 반드시 입사하고 말겠다는 열망이 강했습니다.

취업지원관에게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조금만 준비하면 원하는 회사에 붙을 것 같고, 또 어떤 학생은 반복 연습을 해도 어렵겠다는 경험에서 비롯된 육감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학생은 후자였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꿀 먹은 벼어리마냥 아무 말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고민 끝에 먼저 시청각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생에게 면접 관련 유튜브 영상을 5회 이상 시청하고 오라고 당부하고 서서히 면접의 강도를 높여갔습니다. 조금씩 웅얼이가 터지듯 말문을 열기 시작했고 인사만 하면 부끄러워 의자를 들썩했던 학생이 며칠이 지나자, 눈 맞춤까지 하며 저와 스스럼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기뻐했습니다. 면접 달인까지는 아니지만 말하는 태도나 화법 등이 많이 개선됨을 느끼게 되었고, 평소 자세 역시 구부정한 어깨가 일직선으로 펴지는 것에 가능성이 느껴졌습니다. 현

재 학생은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 유명 제약회사에서 재직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관은 선불리 학생을 짐작하기보다는 반드시 ‘합격’한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 사이 친밀함을 넘어 서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며 특성화고 학생들은 갓 사회에 진출하는 만큼 사소한 것 하나도 궁금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왜 인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나침판 역할도 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졸 취업이 지금 당장은 망막해 보여도 함께 준비하고 노력하면 결국 합격한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의 발언 하나하나가 나비효과가 되어 젊은이의 미래를 변화시킨다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취업준비생의 든든한 동반자!

KB굿잡이 함께 합니다



KB Good Job 이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구직자들과 우량 종건·중소기업간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KB국민은행의 '일자리 정보제공 프로젝트'

KB굿잡 소개

홈페이지

- ✓ www.kbgoodjob.co.kr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전용채용권] 운영 등 서비스 차별화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찾기
↑ KB Good Job ↓



KB굿잡 취업박람회

- ✓ 국내 최대 규모의 일자리정보 공유의 장
- ✓ 차별화된 테마별 온·오프라인 행사 운영
- ✓ 취업이카데미, 취업학교 운영 등
- ✓ 'One stop 서비스' 개념 취업교육 병행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 일자리 페스티벌!

2017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

장소: 일산 킨텍스(京畿) 제1전시장 2홀
일자: 2017. 5. 10(수) ~ 11(목)

더 큰 도약을 위한 빠른도전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수기집

발 행 2017년 3월
발 행 처 교육부
주 소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전 화 : 02-6222-6060, 044-203-6118~9 (공휴일, 야간)
팩 스 : 044-203-6133, 6144 (공휴일, 야간)
교정교열 강년수
인 쇄 처 (주)승림디앤씨
전 화 : 02-2271-2581~2
팩 스 : 02-2268-2927

이 책의 내용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 큰 도약을 위한 배른도전

